

우수강의교원 시상제 도입

학생지도실적 따라 승진·재임용시 인센티브 적용

본교 교무처(처장=신재호·전 자공학)는 교수의 교육활동을 강화하고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우수강의교원을 선발, 매해 개교기념식에 시상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우수강의교원 시상안'을 발표했다.

이는 이제까지 대학 평가가 교수들의 논문 수나 연구과제 수 등 교수들의 연구 능력에 치중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경시되어 왔던 교육활동에 내실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우수강의교원 선발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교수 평가 기준을 종합하여 우수강의교원을 선발해 위로, 격려하는 것이 목적이다.

우수강의교원은 다양한 기준으로 선발하여 교수들이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인성지도, 진로지도, 학업지도를 통하여 진정한 인간을 양성하도록 장려하며 따라서 그 동안 대학평가에서 소홀히 다루어져 왔던 교육활동 부문이 강화, 교육의 질적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수강의교원 시상은 △강의 계획서를 얼마나 충실히 작성하고 따랐는가 △시범, 과제, 발표, 토론, 보고서 등 다양한 성적평가 기준을 적용했는가 △성적평가는 상대평가 분포에 알맞게 하였는가 △학습지도방법이 얼마나 다양한가 △학생지도 실적이 어

느 정도인가 등의 심사기준과 함께 학생들의 강의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선발한다. 또한 전공학문 분야 외에 교양교육분야를 추가하여 교수들이 교양교육에 충실 하도록 유도하며, 교양교육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우수강의교원으로 선발되면 △연구평가의 우수논문 1편에 해당되도록 인정하여 승진과 재임용 심사에 반영 △1년간 책임시간 3시간 감면 △교내나 교외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포상금을 받게된다.

이와 함께 매 학기말에 실시되는 강의평가는 수강신청을 할 때

온라인으로 지난 학기에 수강한 모든 과목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며, 각 강좌별 특성에 맞는 강의평가서를 작성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신재호 교무처장은 "강의평가결과는 각 교수님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될 것"이라며 "자칫 학생들의 인기표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학생지도실적은 학업지도카드를 통해 반영되며 이는 현재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학업지도교수제도를 활성화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진아 기자 ring@dgu.ac.kr



‘허준’의 손길 ...
드라마 ‘허준’의 의료자문을 담당하고 있는 본교 산하 강남·분당힐빌병원의 의료진들은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지난 11일부터 나흘간 여의도 중소기업전시장에서 무료진료를 실시했다.
김윤미 기자 junikiga@hanmail.net

지면안내

5.18 광주 민주화 운동 7면

광주 민주화 운동 20주년을 맞아 다시금 그 의미를 생각해보고 5·18에 대한 세대별 인식을 들어본다.

베트남·노근리 양민 학살 4면

벤처 기획 5면

북한 문화 바로 알기 6면

보리수

연등

전 해 주(불교대 불교학부)

올해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다채로운 행사가 벌어졌다. 지금으로부터 2544년 전 신타타 태자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부처님의 탄생을 봉축한 것이다. 등불을 켜는 연등행사와 제등행렬의 축제가 그 어느 때 못지 않게 크게 열렸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이 온 누리를 밝혀 모든 중생이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부처님께서 울리는 공양의 종류를 여섯 가지로 나누어 율법공양이라 한다. 그 중에 촛불을 밝히고 연등을 켜는 등 밝은 빛을 내는 것은 반야공양이라 하여 반야지혜를 상징하는 공양이다. 반야의 광명은 미혹을 걷어내고 이웃을 따뜻하게 하는 자비의 광명으로도 나타나게 된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연기의 진리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는 공존의 법칙이다. 반야의 등 한 등에서 다른 등으로 불을 나누어 주어도 자신의 밝음이 감소되지 않는다. 아무리 수 많은 다른 등으로 불을 불어주어도 자신의 밝음이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 오히려 빛을 나누어 밝은 등불이 많아질수록 자신이 밝힐 수 있는 주위가 넓어지고 다른 등과 더불어 밝음의 강도가 더 커진다.

그것은 서로의 빛이 교섭됨을 허용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 등과 다른 등의 빛은 자신이 밝히는 영역을 차단하지 않고 서로서로 다른 등의 빛과 함께 어우러져 자신의 영역을 내어주고 다른 빛의 영역으로도 들어간다. 그리하여 등불이 많을수록 밝음의 힘은 더욱 커지는 것이다.

‘부처님 오신 날’은 우리 자신에게 내재되어 있는 지혜와 자비의 등에도 함께 불을 밝혀서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뜻이 구현되도록 다짐하게 한다. 연등의 광명은 우리에게 지혜와 자비를 통해 함께 행복하게 사는 삶의 길을 밝혀 주는 것이다.

교수초청 만찬 열려

조정래·공로명 교수참석

‘석좌·겸임·객원·연구교수 초청 만찬’이 지난 12일 상록원에서 열렸다.

조정래 작가, 공로명 전 외부 장관 등 여러 인사가 참석한 이번 연회에서는 학교현황 소개, 본교 발전을 위한 제안이 논의되었다.

행사를 준비한 대외협력처(처장=한보광·선학)의 한 관계자는 “사회 각계 각층에 퍼져 있는 동국인들의 유대를 강화하고 본교 발전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자리가 됐다”고 전했다.

불교학술세미나 개최

예술분야 중심으로 발표

불교문화연구원(원장=목정배·불교학)은 ‘21세기 불교예술의 향방’이라는 주제로 지난 13일 90주년기념 문화관 덕암세미나실에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불교음악에 대해 박법훈(중앙대) 교수가 △불교미술에 대해 홍윤식(전.본교 역사교육학) 교수가 △불교연구에 대해 본교 김흥우(연구영화학)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다.

한편, 불교학회(회장=목정배)는 오는 20일 덕암세미나실에서 ‘전국 불교학술발표대회’를 개최한다.

창업보육센터 내일(16일) 개관

개소식 기념 벤처특강·창업경연대회 실시

본교 창업보육센터·인터넷창업보육센터 개소식이 오는 16일 동국관 1.동 옆에 있는 정원에서 열린다.

송석구 총장, 김동일 중구청장을 비롯한 전국 대학의 창업보육센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개소식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내빈소개 △이종욱(정보관리학) 창업지원단 단장의 경과보고 △송석구 총장의 인사 △김동일 중구청장의 축사 △입주업체 소개 △폐회 순으로 진행된다. 이어 송석구 총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동국관 창업보육센터 입구에서 현판식을 진행하고 입주 업체들을 둘러 볼 예정이다.

한편, 창업지원단(단장=이종욱·정보관리학)은 개소식을 맞이해 벤처창업특강과 벤처창업

경연대회를 실시한다. 벤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벤처창업특강은 오늘(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매일 오후 2시 본관 중앙담에서 △벤처창업과 코스타’를 주제로 양재·포이벤처지원센터 최정원(임 87쪽)소장 △‘벤처기업가 정신’을 주제로 인터넷 경매사이트 육성의 오혁(일문 89쪽)사장 △‘정부의 벤처지원 정책’을 주제로 서울중소기업청의 현상만 과장이 강연할 예정이다.

한편, 본교에 재학중인 학부·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모집한 벤처창업경연대회는 지난 12일까지 8개의 사업계획서가 접수됐으며, 오는 18일 동국관(L401)에서 참가자들이 사업설명회를 진행하며 대상은 한 팀에게 지원금 3백

만원과 창업지원단 입주기회를 부여하고 우수상 한 팀에게 2백 만원을, 가작 2팀에게 1백 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캠퍼스 80%취업

작년보다 19% 증가

예년에 비해 취업경기가 풀리면서 본교 서울캠퍼스 학년도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80.4%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취업률 61.3%에 비해 19.1%가 높아진 것이다. 총 2천5백64명의 졸업생 중 1천 3백55명이 취업했으며 이중 대학원 진학생, 군입대생, 그의 각종 고시 준비생을 제외한 순수 취업률은 52.8%이다.

이와 관련해 이우용 취업관리팀장은 “지난해에 비해 취업률이 올라서 다행”이라며, “이번 졸업생들의 더 높은 취업률을 위해 많은 강화를 마련하고 있으며, 취업상담카드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13기 서총련 출범식

오는 20일 서울산업대에서

‘제13기 서울지역 총학생회 연합(이하 서총련) 출범식’이 오는 20일 서울산업대학교에서 치러진다.

서울지역에 있는 40여개 대학에서 각각 선전전과 출범식을 가진 뒤 서울산업대로 집결해 치러질 이번 출범식은 △서총련의 정당성을 알리고 민중과 함께 출범식을 공유 △미국의 노근리 양민학살 규탄 등 범국민 반미항쟁을 결의 △서총련 정책과 노선 결정 △서총련의 조직적인 단결 △조국통일과 단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출범식의 구체적인 일정을 살펴보면 △종로파, 율동파 등 문

예공연 △5.18 남북해의 청년학생 공동집회인 범청년학생연합회의 결의대회 △거리전 등이 사전행사로 진행되며, 본 행사에는 △지난 4개월간 있었던 서울지역 대학의 학원자주화투쟁 경과보고 △조국통일위원회와 전 민족특별위원회 출범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지난달 1일 치러진 서총련 대의원대회에서 제13기 의장으로 당선된 박제민 경기대 총학생회장이 의장으로 취임한다.

이밖에도 오는 21일까지 셋불 선전전과 대동놀이가 열리며 ‘서총련으로 삼행시 짓기’를 공모하는 등 다채로운 행사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야구부 전국대회 출전

16일 성대와 첫 시합

본교 야구부(감독=한대화)는 오늘(15일)부터 9일간 동대문야구장에서 열리는 제34회 대통령기 전국대학야구대회에 출전한다. 총 24팀이 참가하는 이번 경기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되며 본교는 오는 16일 오후 6시에 성관관대와 첫 경기를 치를 예정이다.

고수동정

▲송석구(철학)=오는 19일 ‘대북포용정책과 종교인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부산에서 열리는 세미나 참석.

▲백경남(정치외교학)=지난 9일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신입위원장(장관급)으로 임명.

학교사랑 캠페인



스승님께

감사와



전합니다.

오늘(15일)은 스승의 날-

“언제나 인자한 미소로 제자를 자식처럼 맞아주시신 ‘스승님’이 그리워지는 5월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조교제도 개선 합의 가능할 듯

교수T.A. 신설 동의... 처우문제 이견 보여

대학원총학생회(회장=이영재·정치학 박사과정 2학기, 이하 원총)와 학교측은 지난 12일 조교제도 개선안에 대한 2차 공개협의를 가졌다. 그러나 최종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해 오는 18일 3차 공개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양측 모두 '조교제도 개선 설문조사' 결과에 나타난 조교제도 개선의 필요를 공감하고 있으나 조교제도 개선안 중 일부에 이견을 보이고 있어 양측 실무진 간의 협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학부제를 비롯해 모집단위 광역화로 입학한 1·2학년 학생들은 유명무실화된 '학업지도교수제' 미평

아래 '방목'돼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수들은 개별 연구시간조차 갖기 힘들 정도로 학사행정에 매몰되어 있어 학생지도는 업무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학교측은 조교인원을 늘리기 위해 교수인당 1명의 조교를 배치할 수 있는 교수 T.A.(Teaching Assistant)를 조교제도 개선안에 신설했다. 또한 교육조교, 연구조교, 수업조교로 세분화했던 조교제도에서 교수T.A.와 큰 차이가 없는 수업조교는 폐지하고, 4등급으로 구분되던 교육조교의 처우기준을 단일화 하는 것도 포함하였다.

교육조교는 각 학과, 단과대, 대학원에서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조

교들을 말하며, 연구조교는 실험실습을 보조하는 조교들과 본교 산하 부속연구기관의 행정조교들까지도 포함한다.

이날 협의에서 학교측은 신설되는 교수T.A.에 대한 처우로 등록금의 40% 감면을 제안하며, 여러 주변상황과 재정상태를 고려해 단계별 상향조정을 제안했다. 이 제안에 대해 학교측은 "단기적으로 80% 감면해 줄 것을 요구했던 원총은 학교측에서 단계적 발전 대안을 약속한다면 올해 최소한 등록금의 50% 감면율은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영재 대학원총학생회장은 "전

체 조교예산의 확충"이라는 전제 아래 "대학원생의 수혜폭을 확대할 수 있다면 현재 일하고 있는 교육조교의 급여 삭감은 감수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석·박사 과정의 학력 차등과 경제적인 어려움 등을 부분적으로 인정해 박사과정의 조교에게는 석사과정의 조교에 비해 약간이라도 급여를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문옥래 인사관리팀장은 "업무량 같은 급여에 차이를 두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원총의 제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은선 기자 eunsun@dgu.ac.kr

신나는 '쌍쌍가요제' 한마당

총학생회(회장=김박성경·행정4)는 오는 25일 '쌍쌍가요제'를 개최한다.

올해 처음 열리는 쌍쌍가요제는 남녀 재학생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여성 캠페인 '무슨 연구소'가 출연한다. 오는 24일까지 총학생회실에서 개인 또는 팀별로 접수 받으며 참가자 전원에게 참가상을 지급할 예정이다.

"따르릉, 음성을 남겨주세요"

지난 7일 구내 전화의 아날로그 전화교환기가 한국통신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교환기로 교체됐으며, 이와 함께 교수회관 2층에 위치했던 전화기계가 설치 다량관 정보관리실로 이전했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학교 구내전화로 전화를 받지 못할 경우 상대방이 남긴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음성사서함 서비스'

가 실시되고, 학내전화와 관련된 모든 서비스는 한국통신에서 맡게 된다.

이와 관련해 정보관리실(실장=이종욱·정보관리학)의 한 관계자는 "음성을 남길 경우 전화로만 확인이 가능한 것과는 달리 앞으로 컴퓨터를 통해 메시지를 확인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고려대장경 해석판 번역 완료

역경원(원장=김성구)은 지난 5일 해인사에 보존돼 있는 고려대장경 해석판 '정원신정석교목록'과 '일체경음의'를 번역, 완간했다. '정원신정석교목록'은 고려대장경의 목록들을 나열한 책이고, '일체경음의'는 경을 읽는데 참고하는 불교학 사전이다.

이와 관련해 역경원의 한 관계자는 "세계적 문화유산인 고려대장경에 일반인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취업준비하러 오세요"

취업강좌 오는 18일 덕암세미나실에서 개최

'교원 임용 시험 설명회'와 '취업특강'이 오는 18일 90주년기념 문화관 덕암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오후 1시 30분부터 진행되는 '교원 임용 시험 설명회'는 구형회 교원임용연구위원장이 '2000년 교원임용시험 특강'을 주제로 강연하며, 자료집과 기출문제 면접자료가 준비되어 있다.

이후 오후 3시부터는 삼성전자

김병구 인사부장을 초빙해 '대기업 채용변화와 취업전략'에 대한 특강이 있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이우용 취업지원팀장은 "학내에 집중되어 있던 취업강좌를 올해는 예년에 비해 늘어난 가을 학기 졸업예정자 중심으로 준비했다"며 "학생들의 꾸준한 관심제고를 위해 매달 취업강좌를 열 계획"이라고 전했다.



졸업연습... 따뜻한 햇살아래 지난 12일 명진관 앞에서 졸업앨범 사진 촬영이 있었다. 하늘높이 던진 학사모를 바라보는 모습이 해맑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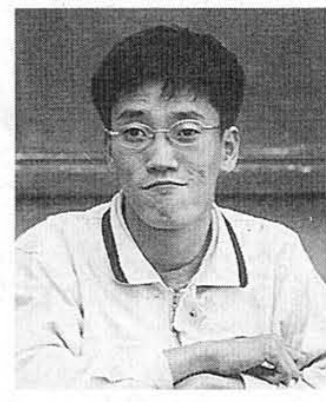
김진아 기자 ring@dgu.ac.kr

'나라사랑상' 수상자 박성준군을 만나

"열린 마음이 가장 필요하지요"

"남에게 받은만큼 배운 것 뿐입니다"

선천성 뇌성마비 1급 장애인으로 일어서지도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는 한 청년이 자신보다 못한 처지에 있는 학생들을 가르쳐 상을 받는다. 오늘(15일) 서울에서 제정된 제22회 서울어린이·청소년·청소년지도자상 중 최고상인 '나라사랑상'을 받게 된 박성준(문정4)군. "그동안 저에게 남들과 다른 것은 가르침을 주셨던 선생님, 선임견을 갖지 않고 도와준 친구들과 뒷바라지 해주신 어머니 등 많은 사람에게 받은 사랑을 다시 되돌려 준다는 생각으로 봉사했습니다"



박성준(문정4)

생 가운데 5명이 중·고등학교 검정고시에 합격하는 기쁨을 누렸다. 지금은 하루를 봉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금요일에 아이 수업을 비웠다.

박군은 학교에서 다른 학생과 전혀 다른 모습의 '보통 학생'이다. 1·2학년 때는 학과에서 MT나 여행을 다닐 때마다 빠지지 않고 참가했으며, 지금은 졸업여행을 앞두고 떠날 것이다. "제가 어디든 다닐 때마다 친구들이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손 내밀었을 때 거절하지 않고 휠체어를 타게 해주신 친구들이 고맙더군요"

졸업을 앞둔 4학년으로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그는 세상에 마음을 여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비록 좋은 몸을 가지지는 못했지만 누구보다도 건강한 마음을 가졌다고 자신한다.

김현중 기자 roket123@dgu.ac.kr

회전무대

고물 난장판

O... 요즘 중앙도서관 앞에는 여기지기서 물러 온 고물(?)들이 관을 친다는데.

다항관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공사여에 쓰였던 각종 물건들이 방치되고 있다.

철재물, 시멘트 포대 등의 각종 건축폐기물과 분수대 앞에서 불법을 쪼는 학생들이 서로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다.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왓, "충격속보, 캠퍼스 내에 폐기물과 학생들은 '부적절한 관계(?)'에 놓여있다!!"

방황하는 종이컵

O... 언제부터인가 커피자판기 앞에는 종이컵을 들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데.

지난해 설치되었던 종이컵수거대가 대부분 망가지거나 사라져 버려 그 처리를 고민하는 것이라고.

수거대를 설치한 해농고 관리는 뒷정리 예산낭비와 재활용 자원까지도 낭비하는 꼴이니.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왓, "특명, 종이컵 수거대를 수배하라!"

엇갈린 커뮤니케이션

O... 요즘들어 명진관에서는 은근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는데.

명진관에 들어선 컴퓨터실 때문에 2층에 자리잡았던 각과 회화실을 지하 1층으로 옮겨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는 학교측과 학생들 사이의 의견이 엇갈린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니.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왓, "요즘 N세대들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좋아한다니까요!!"

노터치 스크린

O... 언제부터인가 학생편의를 위해 제작된 정보마당 컴퓨터가 작동되지 않는다고.

터치 스크린으로 제작되었지만 막상 이용하려 하면 누구의 손가락에도 무반응이라고.

이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유명무실하게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것이니.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왓, "작동하시오, 작동하시오. 안그러면 침을 뱉소!!"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 15일 창간(주진)

발행인 송석구 인터넷 동대신문 http://dgu.press.dongguk.ac.kr
 편집인 겸 주간 양영진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ac.kr
 부주간 백승석 하이텔 ID dpress 나우누리 ID 동대신문
 편집국장 박상관 천리안 ID dguress
 편집장 김진아 구독문의: (02)2260-3491·2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 경주캠퍼스 (우)780-714 경북 경주시 석정동 707
 전화 (02)2260-3491·2 팩스 (02)2276-1270 전화 (066)1770-2338 팩스 (066)1770-2357

2000학년도 여름 계절학기 공고

- 개설대상 교과목
2000학년도 1,2학기 개설(예정) 교과목 및 계절학기 교과목(가상강좌 및 실험실습 교과목은 제외)
- 수업일정
가. 2000. 6. 22(목) ~ 2000. 7. 13(목), 16일간
나. 토요일, 공휴일 제외(산악학생, 수업 등의 수업은 별도 지정) 강좌가 개설됨.
- 강좌개설 기준인원: 전공 및 교외교과목은 7명, 교양교과목은 10명 이상인 경우에만 강좌가 개설됨.
- 수강자격 및 신청절차: 2000학년도 1학기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6학점 이내에서 신청가능함.
- 성적처리
가. 계절학기 수업에서 취득한 성적은 졸업학점에만 포함되며, 장학금 선발 및 학사기록 등 정규학기 학적취득과는 구별됨.
나.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함
다. 학업(과락)은 성적증명서에 등재됨
- 수강신청 및 접수
가. 기간: 2000. 5. 22(월) ~ 5. 24(수) 3일간
나. 신청서 교부 및 접수
(1) 서울캠퍼스: 교무처 학사지원실(야간 대학생은 야간강좌 교하처)
(2) 경주캠퍼스: 경주캠퍼스 교무처 학사지원실
다. 제출서류: 계절학기 수강신청서(소정양식) 1매
라. 수강료
(1) 개설 교과목 1학점당 65,000원 (에: 3학점 과목 신청시 195,000원)
(2) 개설 교과목의 특성상 수업에 필요한 부대경비는 수강자 지부 부담.
- 개설대상 교과목 및 수업시간 확정발표: 2000. 5. 29(월).
- 수강신청 정정기간
가. 기간: 2000. 5. 29(월) ~ 5. 30(화), 2일간
나. 재입: 최초 수강신청후 재강, 시간공백의 사유 발생시에만 가능

●개설 예정 교과목

시간	번호	구분	과목	학점	비고
오전 9:30부터 12:20까지	1	EGC153	요가와 자이빙구	3	
	2	EGC201	한국문학의 이해	3	
	3	EGC309	매스컴과 사회	3	
	4	EGC313	한국학개론	3	
	5	EGC457	과학기술사	3	
	6	EGC502	현대영어특해	3	
오후 13:00부터 15:50까지	7	EGC506	기초일본어	3	
	1	EGC207	한국사의 이해	3	
	2	EGC304	경영학개론	3	
	3	EGC401	일반수학1	3	
	4	EGC413	생물학개론	3	
	5	EGC503	초급영어회화	3	
별도 지정일	6	EGC514	초급한문	3	
	7	EGC551	시사영어	3	
	1	EGC157	신시의 생활	1	*수업일자 별도지정
2	EGC685	수영	1	*수강료의 부대경비는 수강자 지부 부담	
3	EGC687	골프	1		

※ 상기 교과목은 개설 예정교과목이며, 타교과목도 신청이 가능함. 다만, 강좌 개설 여부는 수강신청 결과에 따라 확정이나 유의변함.

교 무 처

개교 94주년 기념 출판부 도서 할인판매

새천년 첫 축제를 맞이하여 본교 출판부에서는 학생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보다 책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래의 발행 도서가 정가 대비 50% 특별 할인한 가격으로 한정 판매합니다.

도 서 명	정 가	수 량	도 서 명	정 가	수 량
1 학교연구	3,800	20	21 문학과 교양	8,000	100
2 한국불교사상사연구	7,500	20	22 불교학개론	8,000	20
3 평안방언연구	7,000	20	23 불교문화사	5,000	20
4 소장품명백선	8,000	100	24 철학개론	4,000	20
5 조선전기불교사상연구	8,500	20	25 연구논문작성법	2,500	20
6 한국연구사	12,000	20	26 한국과학사상사연구	10,000	20
7 전쟁과 국가	4,000	20	27 노예의길	8,000	20
8 한국불교사문학론	5,000	20	28 재우회계연습(문제편)	9,000	100
9 불교와 제과학	30,000	100	29 재우회계연습(해답편)	17,000	100
10 영역한국불교사상	4,500	20	30 광개토태왕비석초기탁본집성	70,000	100
11 한국경제의지론	3,000	20	31 양주동전집 1차본(1-5책)	102,000	10집
12 국어학 논고	5,500	20	32 양주동전집 2차본(6-12책)	218,000	10집
13 중국과거제도의 사회사적연구	6,000	20	33 영미시결작선	12,000	20
14 신탁대 비트겐슈타인	6,000	20	34 미국초절주의 3인선	15,000	20
15 현대인권론(상,하)	22,800	각20	35 T.S.엘리엇 문학비평	15,000	20
16 회합비극론	3,500	20	36 포스트모더니즘의문화의위기	18,000	20
17 신라연구논저목록	8,000	20	37 광인의 변	20,000	20
18 원시인, 일어연구	6,000	20	38 실려원, 장사삼손	17,000	20
19 고조선기의 실증적연구	12,000	20	39 불교와도가사상	12,000	20
20 한국시장경제사	12,000	20	40 숨어있는 황금의 꽃	11,000	20

■ 기 간 : 2000. 5. 22~24(3일간)
 ■ 장 소 : 다량관 앞

출 판 부

교원임용시험설명회

교원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재학생 및 졸업생들에게 효율적인 시험준비와 합격에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교원임용시험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주 제 : 2001년 교원임용시험 특강
- 강 사 : 구형회 교원임용연구위원
- 일 시 : 2000년 5월 18일(목) 오후 1시30분-오후3시
- 장 소 : 문화관 덕암세미나실
- 대 상 : 재학생
- 문 의 : 본관 취업지원팀(2260-3053-5)
- 자료집 및 기출문제 면접자료 배부

학 생 처

취업특강

재학생들의 장래진로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 취업을 향상 및 취업준비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취업특강을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주 제 : 대기업 채용변화와 취업전략
- 강 사 : 김병구(삼성전자 인사부장)
- 일 시 : 2000년 5월 18일(목) 오후 3시-오후5시
- 장 소 : 문화관 덕암세미나실
- 대 상 : 재학생
- 문 의 : 본관 취업지원팀(2260-3053-5)
- 자료집 배부

학 생 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앞서

논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인가, 부정수급자방지법인가?

혹자는 우리 사회를 약육강식이 판치는 '동물의 왕국'이라고 평한다. 경쟁에서 낙오된 사람들은 자살을 하거나 굶어야 되는 형국이나 동물의 세계와 무엇이 다른지는...

을 '제2의 6.29'라고 까지 비하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준비과정에서 보여지는 상황 때문이다. 예전처럼 또다시 예산에 맞추어 대상자를 선정하고, 예산에 맞추어 급여를 제공하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며 어떤 기준은 오히려 후퇴하였다. 수급자 선정 기준은 가혹하리만큼 제한적이어서 보호가 필요한 새로운 가구가 수급자로 선정되기에는 커녕 기존 생활보호대상자의 다수가 탈락할 위험에 처해 있다. 예전에는 생활보호대상자가 되기 위한 관문이 3가지였으나 이제는 6가지로 늘어났다.

제한적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기존 생활보호자 미지 탈락 위기

올 10월부터 시행예정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다른 아닌 최저생활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족과 함께 최소한도로 먹고 살 수 있게 하고, 몸이 아플 때 치료해 주고, 고등학교 교육까지를 정부가 책임지는 제도이다. 그 뿐만이 아니라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기술, 자본, 지식, 정보가 없어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자금이나 기술 등 창업 지원, 공공근로 등 다양한 면으로 지원해 주자는 제도이다. 그런데 현재 일각에서는 이 법의 제정

특히 문제가 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산기준은 생활보호제도 보다 더욱 강화되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전혀 없고, 중증 장애인인 아들과 같이 살고 있는 노부부가 3천500만원 짜리 반 지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가구는 재산기준을 초과한다는 이유 때문에 수급자가 선정될 수 없게 되었다. 그 노부부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그 집을 처분하기 위해 복덕방에 내 놓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둘째,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별기준이 너무나 가혹하다. 어떤 노부부에게 부양의무자인 아들이 한 명 있는데, 그 아들 가구(4인 가구)가 소득이 전혀 없어도 재

산만 7천300만원이 넘으면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그 부모는 수급자가 될 수 없게 되었다. 셋째, 전세계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주거면적 기준이 마련되었다. 소득이 전혀 없고, 노동능력이 전혀 없는 가구라고 하더라도 15평이 넘는 자기 집에서 살고 있으면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게 되었다. 그 집에 식구가 많고, 주택의 가격이 1천만원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부정 수급자 방지하러다 생활보호자 방치 우려

강화된 선정기준을 놓고 정부에서는 "소득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 예기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가 되려는 극소수의 사람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요보호자를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말 그대로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자 제정된 법이지 부정수급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마련된 법은 아니다. 실형 선정기준이 아주 세밀하게 짜여지지 못해서 일부 부정수급자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여 굶게 될 많은 아이



허선 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들과 어르신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진정한 국가 재정을 생각한다면 부정 수급과 같은 생계형 범죄를 예방하기보다는 탈세와 같은 중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다.

기존예산 의존보다 새로운 재원 마련 요구

정부에서 '소득 파악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최소한의 복지도 남비라고 생각하는 일부 정부 관료들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 그런데 현재 짜여진 예산에 맞추기 위해서 국민의 기초생활보장을 제한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탈세자들에게 대한 세금 징수 등을 통해 새로운 재원을 마련하거나 또는 남비되고 있는 다른 예산을 줄여야 한다. 그 어떤 예산이 국민의 생존권보다 우선하겠는가?

사설

조교제도 협의에 바란다

'1교수 1조교' 시행을 골자로 한 조교제도 개선방안은 여러모로 보아 유익한 제도이다. 우선 조교 수 증가에 따라 장학금 수혜자의 폭이 확대된다. 또한 교수 개인마다 T.A.를 두게 되면 학업지도교수제의 실질적인 운영이 가능해 학부제로 인해 늘어난 교수의 행정업무와 대형강의로 소홀하였던 학생 지도를 할 수 있어 교육의 내실을 기할 수 있게 된다는 장점도 있다.

이런 좋은 제도를 시도하는데 학교당국과 대학원총학생회가 현재까지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수 차례 협의를 벌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는 박사과정에 있는 조교의 처우를 다른 조교와 차등을 둔다는데 있다. 조교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교육조교의 처우는 석사과정 B급으로 통일하는 것에 양측 다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본교 박사과정 조교의 처우가 전국 사립대학 가운데 최고였다는 기존 처우에 비해 많은 액수가 감명됨으로써 공부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는 박사과정 조교들은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워진다. 본교에서 박사과정 조교의 처우를 애초에 높게 책정했던 것은 학교의 학문적 전통을 이어갈 인재를 생각하고 키워보겠다는 야심찬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업무의 양'이 동일하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액수를 지급하는 것은 박사학위과정생들에게 '학문포기'를 강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또 다른 이유는 교수 T.A.의 처우에 대한 의견 차이 때문이다. 혹자는 농담반진담반으로 조교임용장을 '현대판 노비문서'라고 한다. 이는 교수들의 업무보조와 연구보조, 잔신부름 등 각종 업무가 얼마나 과다한지 잘 말해주고 있다. 다형스러운 이번 협상으로 학교당국과 원총이 제시한 박사과정 조교에 대한 동일급에 지급안과 교수 T.A.의 처우는 협의의 통한 타결의 실마리가 있음을 시사했다는 점이다. 신설된 교수 T.A.의 점진적인 장학혜택을 약속하고 대부분의 사립대학처럼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본교에서 급격한 예산축감이 많은 부담인 것을 감안해 하한선에서 출발할 의사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번 개선안에 관해 교수, 조교 모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계속되는 협의를 통해 학교당국은 물론 교수, 조교, 대학원생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해본다.

학내 구성원이 하나되는 대동제를 만들자

매년 5월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대동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학생회 주축으로 진행되어야 할 1학기의 굵직한 사업을 총학이 구성되지 않은 채 꾸러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이를 보더라도 이번 경우 대동제는 그 의미가 더욱 더 남다를 것이다.

그러나 순수하고 때를 지 않은 교육의 장에서 예년의 악습을 버리지 못하고, 술과 삼겹살로 얼룩진 대동제를 치른다면 의미는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 우리 대학원들은 너무나도 이를 무심히 넘기는 경향이 크다. 또한 매년 지적된 문제가지만 명확히 시정되어진 경우는 거의 드물다. 이미 오래전부터 대동제 한쪽에 자리잡은 주막, 그리고 주막을 통해 벌어지는 술문화는 소수의 학생들만이 즐기던 문화를 크게 벌여놓은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주막에서 벌어지는 술값 계산과 대동제를 기회로 학우들의 주머니를 노리는 일부 몰타자한 자들이 판을 치는 것 역시 언제 어디서건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의 참여도가 낮고 다양하지 못한 소규모의 단발적인 행사와 상업성 짙은 퇴폐적이고 향락적인 놀이 문화는 대학문화가 지향해야할 참 모습이 아니다. 현재 학내 구성원 전체를 위한 대동제 준비로 밤낮을 모르는 비대위와 단대학생회측의 고충이 적지 않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총학없이 치러지는 대동제인 만큼 보다 신중을 기해 학생들의 가슴에 의미를 남기고, 이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순수한 의미의 다양하고 신선한 행사가 준비된다면 학내 구성원 모두가 하나되는 대동제를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등록금 인상 저지 운동의 열기가 아직 채 가시기도 전에 치러지는 이번 대동제를 통해 분열되었던 학내 구성원을 하나로 어우러질 수 있도록 대동제 준비 주최측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술도 아니고, 초청 연예인도 아니다. 무엇보다도 총학이 구성되지 않은 지금의 상황 속에서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이들의 힘을 하나로 이끌어 내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무너지는 대학의 위상

기능중시 교육으로 학원화된 대학

순수학문탐구 통해 사회기여 인재 길러내야

'진리의 상아탑'으로 대변되는 대학내에서 학생들의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모습을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자기 성장과 학문 탐구를 위해 학문을 연마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학점을 잘 얻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공부하기 쉬운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요즘 학생들의 상황이다. 교육학과 박부원 교수는 "자신이 배우기 원하는 과목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공부하는 과목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채, 학점에 얽매어 교과목을 선택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안타깝다"며 이러한 현실을 아쉬워한다.

들어가 실질적인 토론 수업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이에 대해 사회학과 강경주 교수는 "과도한 서구식 사고로 인해 학생들이 공론체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과 규율, 질제, 책임 의식을 잃어 버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개인주의적이고 파편화된 학생들의 모습은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를 논하거나 진리를 탐구하는 기초 학문 기피 현상으로 이어지며, 대학에 들어와서도 사고의 폭을 넓히지 못한 채 경직된 사고를 유지하게 된다. 또한, 과거보다 다양화된 사회에서 생활한 대학생은 '스승의 시대'와 공감대 형성이 어렵다. 시간 차이로 인해 사제간마저도 '단절'을 초래하고 더욱 개인적으로 집착되어 버리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간 본성에 대한 성찰과 학문 자체에 대한 순수한 학구열을 길러내는 것보다 컴퓨터, 영어와 같이 '단순



지향적'이고 '사회 기능적'인 과목을 중시하는 현 대학의 교육제도는 결국 학생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소외시키는 '학원식 교육'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교육학과 김성훈 교수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학과열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주는 것이 대학의 의무"라고 하며 교육 환경의 개선과 학생들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강조하였다. 대학의 고등 교육은 학문탐구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사회에 기여하는 '소금'과

같은 인재를 양성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하지만 기본적인 기초 학문을 통한 사회에 기여하는 인재가 아니라 사회기능에 필요한 인재를 길러내기에 급급해 단지 기능적인 교육만을 목적으로 공교육을 이끌어 나간다면,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교육의 모순은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다. 무엇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학구성원들의 대오각성이 요구된다. 박지영 기자 starofeast@hanmail.net

하계방학 해외봉사 단원 모집
2000학년도 하계방학 기간 중 해외봉사 단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목적 : 세계화 시대를 맞아 개발 도상국가를 대상으로 해외봉사활동을 실시함으로써, 문화교류를 통한 국제친선과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학생들의 봉사 의식 고취 및 봉사 능력을 함양하여 국제적 감각을 지닌 차세대 지도자를 양성하고 자 함.
2. 신청자격 : 재학생
3. 선발 기준
가. 신체 건강하고 성실하며 봉사활동 프로그램 수행에 필요한 특기자 우선
나. 각 전문분야별 봉사회 회원
다. 봉사활동 경력자 및 농촌봉사 활동 경험이 있는자 우대
라. 여학 능력자(중국어, 영어)우대
마. 해외 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파견 대상자 선발은 봉사단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함.
4. 선발인원 : 20명
5. 봉사 기간 : 2000. 7. 2(일)~8. 7(월)기간 중 2주
6. 봉사 지역 : 중국 요령성 심양
7. 봉사활동 내용 : 한글, 컴퓨터, 농촌봉사, 예체능(태권도, 미술, 종이접기, 풍물, 한국무용, 레크리에이션)
8. 소요경비 : 학생부담 1인당 40만원 (기타 경비는 학교에서 부담)
9. 신청서류 : 지원 신청서 1부(봉사단 소정 양식)
10. 접수처 : 동국참사랑봉사단(학생복지실내 : 본관 3층)
11. 신청기간 : 2000.5.8(월)~5.16(화)까지
(위 계획은 봉사 지역의 상황에 따라 조정 또는 변경될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국참사랑봉사단에 문의 바람.
문의전화 : 2260-3049

하계 해외자매대학 중국어연수
1. 연수기간 : 2000. 6. 29 ~ 8. 12 (6주)
2. 연수기관 : 중국 상해사범대학
3. 연수인원 : 제한없음
4. 연수내용 : 외국인인을 위한 중국어학습(복해·회화·특별강좌)
5. 연수경비 : 자비부담
구분 경비 비고(1인당)
등록비 \$20
수업료 \$405 6주 기준
기숙사비 \$5.5 1인(2인1실) 기준
식비 \$5 1일(3식)기준
기타 경비 별도 항공료, 주말여행비(1회 약\$120)등
6. 학점인정 : '해외 중국어연수' 3학점(석·박사과정은 대학원 규정에 따름)
7. 신청자격 : 본교 학부 및 일반대학원 재학생(단, 현재 졸업예정자는 제외)
8. 신청서류
가. 해외 자매대학 어학연수 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재학증명서 1부
다. 입학신청서(소정양식) 1부
9. 신청서 교부·접수 : 2000. 5. 22(월) ~ 5. 30(화), 연구처 국제교류담당관실
* 연수일정 중에는 소주(蘇州)·남경(南京)·항주(杭州)·소흥(紹興)지역 여행과 포동신구(浦東新區) 관광·상해시박물관 관람등의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제교류담당관실(☎ 2260-3875)로 문의 바랍니다.

교육대학원 2000학년도 후기 입시요강
1. 모집과정 : 석사과정
2. 모집학과 및 전공명
가. 교육학과 : 교육행정, 교육경영, 상담교육, 유아교육
나. 교육교육학과 : 국어, 지리, 역사, 수학, 윤리, 철학, 미술, 한문, 체육, 영어, 정보, 생명, 가전, 컴퓨터, 종교, 중국어, 일어교과 전공
다. 경우캠퍼스 모집전공 : 국어, 영어, 수학, 역사교육전공(경주캠퍼스 별도모집)
* 원정교사로서 3년 이상의 경력에 있는 자가 상담교육전공을 이수하면 원정교사로서 자격증이 발급됨.
3. 모집인원 : 석사과정 000명
4. 응시자격
가. 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나. 교육법에 의하여 대학원 진학 자격을 인정 받은 자.
다. 외국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외국에서 10년 이상의 정규교육을 이수한 자.
라. 교원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자는 별도의 소정학점을 이수한 자.
5. 원서교부 및 접수
가. 일시 : 2000. 5. 15(월)~5. 19(금) 오전10시 ~ 오후5시(수·목요일은 오전10시~오후8시)
나. 원서대 : 2,000원
다. 원영료 : 40,000원
6. 원서교부 및 접수처
가. 서울캠퍼스 : 교육대학원 교학부 (02-2260-3110)
나. 경우캠퍼스 : 지역개발대학원 교학부 (0561-770-2094)
7. 제출서류
가.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나. 졸업(예정)증명서 1부
다. 최종학교(대학)졸업(예정) 성적증명서 1부
라. 사진(여권용 사진, 3개월 이내 촬영) 3매
마. 주민등록 초본(방역사관 기재, 여자 지원자는 주민등록 등본도 가능) 1부
바.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포함) 1부
* 경력증명서 서류전형 자료이므로 본인에게 해당되는 경력(특히, 전공 분야)의 예·제능 경력에 입시 경력, 비 교사의 교원 자격증 사본 등) 전부 제출요함
8. 전형 일시 및 장소
가. 일시 : 2000. 5. 27(토) 오후 2시
나. 장소 : 본교 90주년기념 학운, 문화관 및 경우캠퍼스 지역개발대학원
9. 전형방법
가. 서류전형 나. 전공 구술 및 면접
10. 합격자 발표 예정일 : 2000. 6. 1(목) 오전 11시 홈페이지 발표, 전화문의 전대사전
11. 특전 및 우대전형
가. 본원의 장학금 지급 내규에 의하여 공·사립 교육기관의 교직원 또는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 조계종 재직 승려 등은 장학금을 지급함.
나. 공·사립교육기관의 교직원, 원로교사 관련 직정원은 경력에 감안하여 서류 전형 및 면접전형 시 가산점 부여함.
* 학부전공(부전공, 복수전공 포함)과 일치하지 않으면 교원자격증 취득이 불가능함.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교학부에 문의 또는 홈페이지(http://home.dongguk.ac.kr/~edugra/) 참조

동약로

스승과 교수



“야! 나 괜히 수업 들었나봐. 교수님이 깡깡해서 대충도 안되고, 수업은 또 얼마나 뻔뻔하니까.”

투덜대며 강의실에 들어오는 한 여학생이 제일 뒷자리에 가방을 내려놓고 볼 멘 소리를 해댄다. 수업 시간이 다가오자 강의실은 하나 둘씩 모여드는 학생들로 가득 메워지고, 여기저기 떠드는 소리로 순식간에 시장 터가 돼버린 듯 하다.

“난 이 교수님이 제일 싫어! 출석을 하루도 빠짐없이 체크하질 않나. 참 너 황당한 시험문제 봤지?”

“진짜, 학점이나 잘 주실 지 몰라!”

불평 늘어놓기에 재미가 난 두 여학생은 두 볼을 찡긋거리며 어느새 수업이 시작됐는지도 모르고 수다 떠느라 정신이 없다.

“거기 노랑머리 여학생! 수업이 시작되면 당연히 책을 펴고 나를 봐야 하는 게 아닌가?”

불호령 같은 교수님의 꾸중을 들은 여학생은 간직 인상을 구기고 이내 가방을 들고 강의실을 나가버린다.

“어허, 요즘 학생들이란... 쫄쫄...” 강의실을 박차고 나가버린 여학생을 지켜보며 혀를 내두르던 교수님의 표정이 순간 딱딱하게 굳어진다.

“병색이 난 교수고 자네들은 학생이야. 서로간에 최소한의 예의 정도는 갖춰야 하는 게 아닌가?”

오늘날 대학사회에서 보여지는 스승과 제자사이의 연결고리는 단지 학점을 따기 위해 수업을 듣고 레포트를 제출하고 시험을 보는 것과 학점을 주는 것 이상의 그 무엇도 아니다.

어릴 적 하얀 종이 위에 콧물 놀러온 ‘선생님 감사합니다’라는 편지와 함께 빨간 카네이션 한 송이를 가슴에 달아 드리는 모습이 대학 강의실에 그대로 재현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교수와 학생이 어우러져 인생을 이야기하며 진정한 인간을 양성하였던 대학의 모습은 옛날 이야기기 되어 버린 듯 하다.

스승의 날인 오늘, 어느 강의실에선가 ‘스승의 은혜는 하늘같아서 우러러 볼 수 록 높아만 지네~’라는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길 기대해 본다.

김지혜 기자 wisdom@mail.dongguk.ac.kr

한국군 베트남전 양민학살 어떻게 볼 것인가

“극단의 시대가 낳은 부끄러운 역사”

최근 언론에 보도된 충청북도 영동군 노근리에서 한국전쟁 초기 미군에 의해 발생한 민간인 학살 사건과 베트남 전쟁 기간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사건은 우리를 매우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공산침략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 왔다는 미군과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 민족의 아들들이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었던 말인가?

노근리 피해자와 베트남 가해자는 우리민족이다

노근리에서 벌어진 일들과 베트남에서 벌어진 일들은 매우 충격적이면서도 언뜻 보면 매우 대조적으로 보인다. 특히 노근리에서 우리 민족은 외국 군대에 의한 학살의 피해자였다면, 베트남에서는 가해자였다.

박정희는 케네디에게 “미국의 과중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국군을 파병시키겠다”고 제안했다.

“용병”이라는 부끄러운 위치가 민간인 학살이라는 부끄러운 역사를 낳은 것이다.

셋째, 두 사건의 가해자인 외국군대들은 피해자인 민간인들에 대해 인종주의적 편견을 갖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두 사건은 모두 오랜 기간 묻혀 있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 두 사건의 충격이 큰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두 사건의 내용이 모두 우리가 미국에 대해,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 갖고 있는 이미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미국과 우리 자신에 대한 이미지가 군사 독재정권 시대에 형성된 허위의식이란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헛된 이미지만에 매달려 있다면, 베트남에서의 민간인 학살의 진실에 다가갈 수 없다. 한국사회를 지배해 온 극우반공주의는 우리 자신이 우리의 현대사를 제대로 인식할 수 없게 만들었다.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의 우리 역사는 슬픈 학살 사건으로 점철되어 있었다. 제주 4.3사건을 비롯하여 문경양민학살사건, 전쟁발발 직후의 보도연맹원 집단처형사건, 대전형무소 수감자 집단처형사건, 전쟁기간 중의 죄악과 우악에 의해 빈집이 자행된 민간인 처형, 거창양민학살사건 등등 슬픈 사건들은 우리 민족이 서로 죽이고 죽은 동족상잔의 비극이다.

우리 근현대사의 상처 베트남전 양민학살에 그대로 반영

모두 5천명 이상이 희생되었다는 베트남전에서의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에는 불행했던 우리 근현대사의 상처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월남에서 돌아온 새까만 감상사’들은 우리와 다를 바 없는 너무나 광범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들은 왜 ‘학살자’의 혐의를 받게 되었을까? 그 해답의 일부는 우리 역사에 배어 있던 빨갱이 학살을 정당화하는 문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베트남에 파병된 병사들은 빨갱이는 인간도 아니고, 동족도 아니며, 빨갱이일 뿐이라고 교육받았다. 빨갱이는 죽여도 좋은, 아니 죽여야만 하는 존재였다. 강력한 극우반공이데올로기의 세례를 받으며 자라난 세대에 속한 사람들은 빨갱이 사냥에 나설 심리적 준비를 잠재적으로 갖추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에 벌어진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 민간인 학살의 원인을 병사들의 심리상태 등에서만 찾으려 한다면, 이는 학살의 책임을 참전병사들에게만 돌리는 것이다. 당시 한국군의 작전은 순수한 전투와 토벌작전을 결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었다. 베트남전에서의 토벌전란 유격대 활동의 근거지가 될 수 있는 자연촌락이나 산재촌을 분쇄하고, 주민들을 신생촌이라 불리는 정착촌으로 옮겨 유격대와 주민의 접촉을 차단한다는 것이었다.

1966년 5월 25일 주월한국군사령부가 발간한 점촌집은 “부락은 모든 적 활동의 근거지”이며, “계릴라의 보급, 인적자원 및 정보수집의 근원은 부락에 놓여 있으며 베트남 하부구



조의 기반은 부락과 주민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런 입장에서 토벌에 나서 마을에 발을 들여놓을 때, 적들의 잠재적 기반인 마을주민들에 대한 학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일 것이다.

부끄러운 역사 앞에서

또한 한국군은 미군에 비해 마을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토벌작전에 유별나게 많이 동원되었다. 박정희는 케네디에게 “미국의 과중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국군을 파병시키겠다고 제안했다. 미국의 과중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미국의 용병으로 베트남전에 참전한 한국군에 부여된 임무는 귀찮고 인명손실의 가능성을 뿐 아니라 민간인 학살의 위험성이 높았던 토벌작전이었다. 박정희는 미국을 상대로 보다 많은 원조를 끌어내기 위해 한국군이 한국전쟁 전후에 공비토벌 작전을 벌였던 것을 상기시키면서 한국군의 대비정규전(對非正規戰) 수행능력과 경험을 강조하였다.

수백만의 목숨을 앗아간 베트남전에서 한국군에 의해 학살되었다는 민간인 5천명이라는 숫자는 아주 작은 부분일 수 있다. 민간인 사상의 대부분은 미군의 용단폭격에 의해 발생했다. 따지고 보면 용단폭격에 의한 대규모 살상이 더 참혹한 것이겠지만, 얼굴을 마주하지 않았던 대량학살보다 근거리에서의 민간인 처형이 더 큰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 ‘용병’이라는 부끄러운 위치가 민간인 학살이라는 부끄러운 역사를 낳은 것이다.

한홍구
성공회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월간 ‘자유민보’ 박준영(28세) 편집위원을 만나

진상규명으로 역사 바로 세워야

정부차원의 공식적 사죄도 함께 촉구

지난해 10월 미군의 ‘노근리 양민학살’이 AP통신을 통해 보도되면서 계속적인 진상규명 작업이 있었다. 이에 2개월 이상 노근리를 비롯한 남한의 양민학살 문제를 조사해서 책자로 펴낸 월간지 ‘자유민보’의 편집위원 박준영(28세)씨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다.

- 미군이 한국에서 자행한 양민학살은 얼마나 밝혀졌는가.
= 노근리 양민학살은 미군이 저지른 수많은 양민학살 가운데 지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미군은 경북 고령군, 경북 예천군 신성리, 경남 마산시 진전면 등 전국적으로 수많은 지역에서 수 만명의 양민을 학살하였다.

이와 같이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살인행위가 전쟁이라는 상황하에서 묵인되어 왔다. 50년이 지나서야 드러난 미군의 만행을 정확히 밝혀내는 것이 우리 민족사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 생각한다.

- 진상규명과 사죄를 촉구하는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요구에 대해 현재 우리정부의 반응과 미국 정부의 태도는 어떠한가.
= AP통신의 발표 이후 반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정부는 실질적 진상조사에 나서지 않고 있다. 대미관계에서 여전히 중추적인 약소국으로 미군정의 만행에 대항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연히 선행해야 할 양민학살 진상규명을 미국과의 우호관계 유지를 해칠까 조심스러워 하지만 한다. 이에 따라 미국은 AP통신에서 밝혀진 노근리 사건만 시인할 뿐 이외에는 극구 부인하고 있다.



박준영
월간 ‘자유민보’ 편집위원

“우호관계 유지를 해칠까 조심스러워
조심스러워

미국, 노근리 사건만 시인할 뿐
이외에는 극구 부인

- 최근 한국군의 베트남전 양민학살 문제가 대두되고 이에 우리도 기해국으로서 책임이 요구되는데.
= 그 역시 정부차원의 진상규명과 공식적 사죄가 시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쓰러진 역사를 청산해야 비로소 과거에 대한 진정한 역사바로세우기가 이뤄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앞서 베트남전에 참전한 우리군의 정확한 소속이 국군이 아닌 미국의 용병이었다는 점과 따라서 미군의 공식적 지휘체통에서 그들의 작전대로 움직였다는 사실은 간과하지 말아야겠다.

- ‘양민학살 진상규명 촉구’를 위한 민간단체의 움직임은.
= 양민학살은 남한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북에서 더욱 잔인하게 자행되었고 지난 1월 25일 북측에서 전민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과 민족적 차원에서 진상규명과 현장발굴을 제안했다. 여기에 전국연합, 범민련, 한총련, 민주노총 등 여러 민족민주단체들이 참여해 오는 21일 발족식을 가지고 북측과 함께 진상규명 활동을 할 예정이다.

김윤미 기자
junyung@hanmail.net

대학광고 시리즈 4 (연하편)



흠린왕과 레코드 바늘

미국의 신화적인 흠린왕 베이브 루스를 알고계십니까?
늘 레코드 바늘 끝을 주시하는 그에게 동료들이 이유를 묻자,
“빠른 속도로 돌아가는 레코드 바늘 끝을 따라 잡을 수만 있다면 아무리 빠른 야구공도 눈에 잘보이지 않겠어?”라고 대답했습니다.
팀 동료들은 그런 그를 비웃었지만 훗날 베이브 루스는 전속력으로 날아오는 공의 실밥까지도 또렷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기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자세-
그것이 ‘메이저리그 통산 714개의 흠린’이라는 신화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은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학문에 매진하는 여러분의 모습이야말로
새로운 ‘신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The Leader
POSCO
http://www.posco.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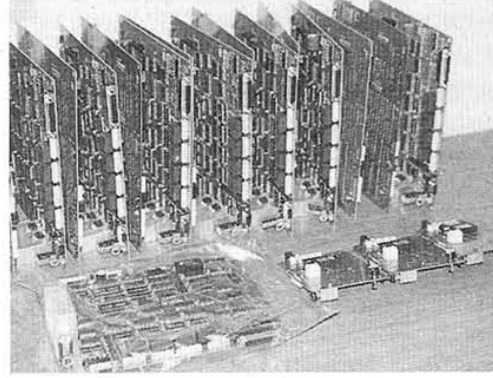
벤처기업 탐방 - 종합보안시스템 개발회사 '가드텍'

“투자 유치와 종업원 주주제가 우리 회사의 힘이다”

기술·아이디어·경영 혁신으로 성장 토대 마련

가드텍(GuardTec, 구 경기시스템, 대표자=김승환·전산72)은 지난 1984년 본교 전산학과 출신인 동문이 창업한 종합보안시스템 개발 회사로 본교에서 전산 시스템을 구축할 때 컴퓨터 공부를 담당하고 각종 지원을 해주는 등 본교와 인연을 맺어 왔다.

가드텍은 국내 최초로 성적관리 시스템과 IC카드를 이용한 종합보안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1988년도에는 서울 올림픽 경기장에 시큐리티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종합보안시스템 개발 전문업체로 자리 매김하였다.



98년 벤처기업으로 등록하면서 정보화 사회에 발맞추어 정보 보안에 관심을 돌린 가드텍은 '컴가드', '인포가드' 등 정보보호제품을 개발하기도 하였다.

IMF이후 자금난으로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던 중 작년 8월 '스마트 21 엔젤 클럽'으로부터 23억 투자 자본 유치를 성공하면서 기술 연구 인력을 확보하고 마케팅 팀을 신설하였다. 이로써 가드텍은 품질로 승부하는 제품 개발에 힘쓰면서 벤처기업으로서의 성장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가드텍

마케팅 팀의 유정민 부장은 "투자 유치를 하기 전 기술은 있으나 자본이 부족해서 고급인력 유치와 기술 개발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한때 직원들에게 3개월 동안 월급을 주지 못할 정도로 자금난에 시달린 적도 있다고 말한다. 현재 가드텍의 자산은 35억을 넘어서고 있으며 작년 기준으로 매출액이 1백억에 달하는 벤처기업으로 성장했다.

현재 가드텍은 독특한 운영방식으로 벤처기업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정직원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종업원 주주제'를 시행하



고 있는 것이다. 회사의 주주가 된 직원들은 각자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일하며, 직원들의 주식 상장 기대치가 높아짐에 따라 일의 능률이 오르면서 성장가도를 달리게 됐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을 주로 하는 일반 벤처기업과는 달리 가드텍은 하드웨어를 주축으로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개발하면서 벤처기업으로서의 기반을 더욱 단단히 마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내수 시장보다는 해외 시장을 노리고 해외 협력사와 제휴하여 미국 시장을 공략하고 있으며 수출 5백만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이에 유 부장은 "내년에는 코스닥에 등록해 회사 가치를 좀 더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루아침에 성장할 것이라는 일반 벤처기업에 대한 인식과는 다르게 오랜 기간을 거치면서 성장한 가드텍, 잘 닦인 기반 위에 전 직원이 함께 운영하는 가드텍은 또 다른 비상을 준비하고 있었다. 박지영 기자 starfeast@hanmail.net

경주캠 벤처창업 보육센터에는...

캠스트루먼트

지난해 창업보육센터 개소와 함께 1차 입주업체로 들어온 캠스트루먼트(대표=손문탁)는 창업교육센터 개소이후 첫 졸업기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양산체제에 들어간 개발품은 초소형 포도당 분석기라는 자동 화학분석기로 현재 경북 중소기업청과 벤처 캐피탈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으며, 산업자원부에서는 이미 9천2백여만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또한 다음달 25일에는 세계 유체분석학회에서 사업발표와 전시회를 가질 예정이다. 특히 부품인 초소형유체제어소자는 캠스트루먼트에서 자체 개발해 대외적으로 주목을 받고있다. 포도당분석 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화학물질의 분석 또한 가능해 여러방면으로 개발이 기대되는 이 제품은 저렴한 가격과 초소형 크기가 커다란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첨성코리아

요즘 석장동 안쪽에 공장을 정비하고있는 첨성 코리아(대표=유성진)는 열흘 후엔 공장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첨성 코리아의 주요 제품은 모형으로 형성대, 석굴암, 포석정, 불국사 등 경주지역 약 50여 점의 문화유적을 특수 제작한 블랙 제품이다. 단시간에 복원해 볼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기존의 블랙인 레고가 시각적 측면만을 부각시킨다면 본 제품은 블랙에 새로운 시스템과 효과를 도입시켜 스탠드 등의 생활용품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아이디어의 우수성을 찾을 수 있다.

6월부터 상품의 본격 출하를 계획하고 준비중인 첨성 코리아는 앞으로 한국의 문화재 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피라미드 등 세계적 석기문화 모형 또한 제작할 계획에 있다.

Dream Studio

경주캠 방송국에서 창업한 동아리인 Dream Studio(대표=태병원·한문4)는 지난 99년 대학지정 창업동아리로 지정돼 경북 도청에서 5백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현재는 동아리 형태 조직이 아니라 사업자 등록을 마친 하나의 기업으로 교내 벤처창업보육센터 내에서 작업 중이다. 주요 업무 분야는 주문형 CD-ROM TITLE 제작과 홍보비디오, 영상콘텐츠 부문으로 저예산 장비로도 촬영, 편집, 제작할 수 있는 디지털 편집방식을 추구하고 있다. 지난해 경북도청 사이트의 하나인 경주유적지 소개와 최근 교내 음악동아리(소리창고) 앨범 제작을 맡았다. 또한 현재는 3차원 멀티미디어 기술을 이용한 '2001년 제주 섬문화 축제' 행사장의 조감도 작업과 명지대 사회교육원 문화창작학과 졸업작품 홍보Viedo를 제작 중이다.

정미혜 기자 kal@mail.dongguk.ac.kr

벤처 기업은 지금 통화중

기술개발과 시장시장 연구에 대한 지속적 노력 필요

"나의 인터넷 아이디어는 대박" 대박을 터뜨린, 하지만 더 큰 대박을 꿈꾸는 벤처 기업인이 등장하는 광고 카피이다. 이처럼 성공한 벤처 기업인이 등장하는 광고가 한 때 활발하게 제작되었다. IMF로 인한 경제 한파 이후 그 어느 때보다도 창업과 벤처에 대한 열기가 뜨거웠기 때문이다.

제 2의 국민이라고 까지 불리는 IMF상황은 구조조정과 급속한 실업난을 동반하며 우리나라 경제의 목을 죄어왔다. 벤처 창업은 이처럼 열악한 경제 상황에 단비가 내리듯 가능성을

제시했다. 아이디어와 기술, 소자본만으로 창업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빌게이츠나 아이디어 '대박'을 쓰는 성공한 벤처 기업인의 모습 등이 벤처에 대한 의지를 고취시키기에 충분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기술력과 사업성(아이디어)만으로 단기간에 성장한 벤처 기업들의 사례를 많이 접할 수 있었다.

벤처 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해주는 핵심적인 요소는 기술력과 사업성이다. 다시 말하면 구매자에게 호소력을 가질 만한 신선한 발상과 이를 뒷받침해주는 탄탄한 기술이 수반되

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력과 사업성을 동시에 갖춘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의 MS사를 꼽고 있다. MS사는 시장을 연구·분석해서 확장시키고 끊임없이 기술개발과 혁신에 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은 결과 끝지의 기업으로 성장했다.

이에 비추어 현재 우리 나라의 벤처 열풍은 '벤처 거품'이라는 목소리와 과장에 대한 고찰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이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급속히 성장한 인터넷 벤처기업 - 전자상거래나 단순 서비스 제공 인터넷 - 의 경우 아이디어를 축으로 한 단기간의 빠른 호응에 비해 급속히 쇠퇴하거나 고전을 면치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스마트21 엔젤클럽 최정원 사무국장은 "현재 벤처의 일정부분에 거품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벤처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경쟁을 통해 자연 소멸될 것"이라며

현재 우려의 목소리가 기우임을 밝혔다. 테헤란로와 양재·포이동로 대표되는 벤처 기업 분포지역에는 10년 이상을 기다림과 실패, 좌절을 겪으며 성장한 기업이 대부분이다. 네트워크 시스템 설비 기업 S.N.D.S. 대표이사 이석재씨는 "벤처기업이 단기간에 기술과 아이디어만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건 허상이다. 벤처 역시 오랜 경험과 기술 개발이 반복되어야 한다"며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보다 신중할 것을 권한다.

앞으로 벤처 시장은 보다 넓어질 것이며 가능성도 많아질 것이다. 하지만 '대박'을 터뜨리는 벤처 기업인은 3%에 불과하다고 한다. 무한한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벤처의 넓은 시장을 장악할 3%는 빛보다 그림자에 주목한 기업이 될 것이다.

최은진 기자 maenads@dreamwiz.com

인터뷰 - '유니 워크' 공동대표 문동환

“영업력이 벤처의 미래를 좌우한다”

지난 99년 창업 후 단기간에 리눅스 관련 업계에서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는 벤처기업인 '유니 워크'의 문동환(유니 워크 공동대표·무역학과 97졸)씨를 만나 벤처기업으로 자리잡기까지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 유니 워크는 어떤 기업인가.
= 유니 워크는 리눅스 전문기업이다. 쉽게 말해서 윈도우에 대응하는 새로운 운영체제인 리눅스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는 회사이다.

리눅스 토발즈(Linus Torvalds)가 개발한 리눅스는 프로그램 소스 공개를 전제조건으로 하며 별도의 요금이나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고도 자유롭게 복제해서 재배포 할 수 있다.

세계적인 기업으로는 미국의 레드햇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리눅스코리아가 유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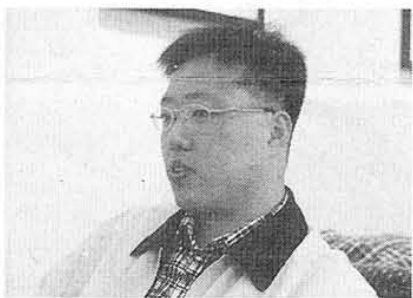
- 창업 계기는.
= 서울은행에 다니다가 명예퇴직을 한 후, 무슨 일을 할까 생각하다가 지난 99년 동생과 공동 창

업했다. 동생이 컴퓨터 관련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창업을 하게 됐고 리눅스 틈새 시장을 노린 것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진 것 같다. 지난 직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내가 자금 운용을 맡고, 공대를 졸업한 동생이 기술면을 담당하고 있다.

- 본교의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올 2월말에 입주했다가 지난달 30일경 사무실을 이전했다. 99년 5월에 유니워크를 창업할 당시에는 2명 정도의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을 했다. 그곳에서 역할을 키우고 기반을 갖추는 일에 주력을 했고, 올 1월 법인을 설립한 후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해서 전용회선을 지원받는 등의 지원을 받아 회사의 토대를 마련했다. 단기간 동안 많은 밑거름이 되었던 곳이다.

- 벤처기업이 우수축선처럼 생겨날 때 창업했는데 창업이 부담스럽지는 않았나.
= 많은 벤처기업이 생겨나긴 했지만 그 당시가 개인이 벤처를 시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스러워도 창업을 강행했다. 당시 창업을 하지 않았다면 그 이후로는 탁월한 기술이나 특허없이 벤처창업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 마지막으로 벤처창업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아이템이나 기술력이 있다고 해서 그것만을 믿고 벤처창업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전에 자기가 얼마만큼이나 영업능력이 있는 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당장 뛰어나가서 시간 내에 어느 정도의 자금



문동환 '유니 워크' 공동대표
을 끌어올 수 있는지 스스로 잘 알고 있어야 한다.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영업력이 벤처의 성공을 좌우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표은영 기자 bluerain@dgu.ac.kr

www.kccworld.co.kr

깨끗한 환경, 아름다운 세상

금강고려화학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최고품질의 제품만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보온단열재, 유리, 내외장재 등 더 좋은 건축자재와 더 좋은 페인트를 생산하는 금강고려화학 - 다양하고 앞선 제품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21세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금강고려화학이 생산하는 제품

- 건축자재: 보온단열재, 내외장재, 창호재, 비단장식재, 실란트
- 유 리: 판유리, 자동차유리, 반사유리, 강화유리
- 도 료: 자동차용, 선박용, 공업용, 건축용, 특수기능도료
- 신기능재: EMC(반도체보호용 봉지재), KTMC(전기 전자용 절연재) A/M(알루미늄 메탈라이징), Fiber Glass(유리섬유)

KCC 금강고려화학

달하나 천강에

아름다운 방향



배 의 용
인문대
철학과 교수

괴테는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한다"고 말했다. 여기서 '노력한다'는 말은 독일어로 'streben'이다. 이 독일어에는 청춘이 성숙해지기 위해, 그리하여 값진 결실을 맺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는 모습이 담겨져 있다.

무릇 열심히 뭔가를 추구하다 보면, 밖으로부터 역경과 장애에 부딪히기도 하겠지만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방황과 나태의 유혹도 견디기 어렵다. 안팎의 장애를 극복하고 마침내 소기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목표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성공에의 강인한 집념이 필요하다. 여기서 'streben'이란 동사에 함축되어 있는 '투쟁하다'는 의미를 비로소 이해할 수 있다. 무릇 인생에서 진실로 가치 있는 것은 행운처럼 다가오거나 그냥 주어지지 않는 법이다. 그것은 '쟁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들뜬의 싹들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까지는 나름대로 오랜 투쟁의 세월을 거쳐야 한다. 인간도 역시 성숙해지기까지는 오랜 극기와 연마의 세월을 거쳐야 한다. 인간처럼 오랜 성숙기가 필요한 생물은 없다. 성숙기가 오랜 만큼 갖춰야 할 것도 많다. 인간으로서 성숙해진다 것은 그래서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성숙해지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그것은 또한 직업적으로 어떤 분야의 지식을 학습하거나 기술을 숙련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존재임을 깨닫고 한번 뿐인 삶의 의미를 매순간에 충전시키려고 노력하는 데에 인간적인 성숙함이 있다.

그러기에 인간으로서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존재의미를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존재의미를 추구하는 동안, 인간은 방황하지 않을 수 없다. 방황하는 한, 고뇌하지 않을 수 없다. 고뇌하며 방황하는 청년의 눈동자처럼 아름다운 것은 없다.



북한문화 바로 알기

북한 문화 새바람을 타다

사상 중심 문화에서 대중문화 속으로

기획시리즈

-북한문화 바로 알기-

북한의 문화는 우리와 어떻게 다른가. 남과 북의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북한 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금강산관광을 시작으로 불발기 시작한 북한 문화에 대한 관심은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를 앞두고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에 본 사 문화부는 '북한문화 바로 알기'라는 주제로 다음과 같이 총 3회의 기획을 실시한다.

1. 남·북한 대학문화 비교
2. 전반적인 남·북한 문화현상 진단
3. 남·북한 문화교류 자세

북한문화에도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다.

북한문화 속의 사상이 대중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현상을 짚어본다.

편집지주

문화(culture)는 독일식 개념으로 '이상을 추구하여 인간이 만들어 낸 것'을 의미하고 영미식 개념으로는 '집단적으로 받아들이는 생활양식'을 의미한다. 두가지 개념이 엄밀하게 구분되는 어려우나 개인에게 인격이 있듯이 그 시대 사회의 품격을 문화라고 보면 거의 무난하다.

문화중에도 미를 추구하는 예술은 인간의 감정과 지성이 최고로 표출된 양태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문화예술의 개념을 정립시키면 한 사회의 단면이나 시대상이 문화예술의 영역에 가장 잘 농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의 문화예술에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보다도 당과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과 혁명성, 사상성 확립이다. 북한헌법(98. 9. 5)에는 다음과 같이 문화예술의 목적이 명시되어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높은 문화예술 수준을 가진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건설자로 만들며, 온 사회를 인테리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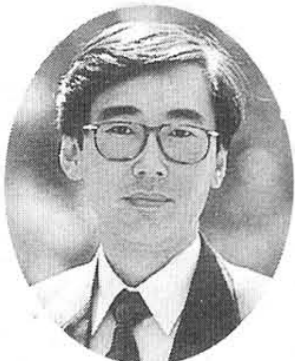
이처럼 북한의 문화는 정치에서 미문화 상태에 있으며, 인민대중을 의식화하고 혁명투사로 변화시키는 지향성을 갖고 있다. 일례로 북한혁명가극의 원조라고 일컬을 수 있는 '피바다'는 러시아 작가 막스고리키의 '어머니'와 내용이 상당부분 유사한 대작으로 프롤레타리아 예술로서의 지력을 보일 정도로 작품성과 혁명성이 돋보이고 있다.

그러나 7~80년대에 들어와서는 거의 수령찬양, 사회주의 체제 옹호, 당 정책 구현 및 선전선동 등에 집중되어 오히려 예술성이 뒤떨어지는 창작물이 대다수였다. 교예(서커스), 경희극은 계속 보완·발전되어 대중사회에 가장 인기가 있고, 문화유물보호법을 제정하여 인민보안성(경찰)에서 문화재를 특별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교예는 국제대회에 출전하여 특상을 수상할 정도로 지위를 아끼지 않고 있다.

다행스런 점은 90년대에 들어 북한의 문화예술계에서도 인민대중이 보기 좋아하는 창작물은 문제가 있다는 식의 견해를 갖고 점차 인민들의 호응도를 고려하여 작품들이 제작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인간내면의 갈등, 서정성, 있는 그대로의 사회상이 나타나는 문예작품이 대두하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은 문예를 통해 남·북한의 상호인식의 차이를 메꾸고 이 분야가 민족공감대를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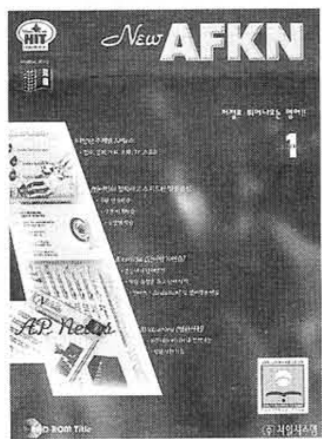
박갑수
통일교육원 교수

교수가 권한다



김현정 교수
이과대 반도체학과

NEW AFKN STUDY



상과 함께 재생하여 생동감있는 영어를 접할 수 있고 그 내용을 토대로 공부할 수 있다. 프로그램 안에 영어사전도 내장되어 있다.

(주) 서일시스템 / 정가 2만2천원~2만7천500원.

엔트로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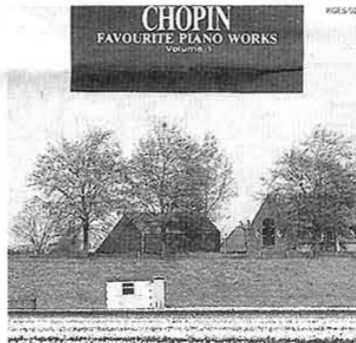


변화 속에 에너지가 투입되면 무질서가 질서의 상태로 변화한다고 말한다.

그리하여 과학발전이 가속화될수록 에너지의 고갈이 심화되고 에너지가 부족하게 되어 무질서의 상태로 변화한다고 이야기한다.

제레미 리프킨 지음 / 범우사, 정가 7천원.

쇼팽의 Favourite Piano Work Vol. 1



노턴(아상곡)으로 유명한 쇼팽의 피아노 작품이다. 우리나라 정서에 맞게 강하면서도 우수에 찬 분위기가 느껴진다. 비오는 날 음악을 크게 틀어 놓고 감상하면 감동이 더욱 크다고. 콜롬비아 / 정가 1만2천원.

다음호 문화현은...

6면

- ◎ 북한문화 바로알기 시리즈 3
- ◎ 금요일의 문학이야기

7면

- ◎ 매체비평 TV편 - 멋진 친구들(시트콤)
- ◎ '체 게바라' 열풍 진단

아직도 책값 다 내고 사니?

37%까지 저렴하다! 대한민국 대표 인터넷 서점- yes24.com

똑같은 책인데, 비싸게 살 필요 있어? 편리하고 알뜰하게 YES24로 가자. 최고 37%까지 판권 할인되지, 주문만 하면 번개같이 배달되지, 게다가 1:1 서비스, 전자도서, 적립금제도, 신간도서 안내메일, 웹진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득하잖아! 이제 전공, 교양은 물론 선물도 YES24라구!

5월 내내 신나는 **북상풍** 이벤트가 쭉~욱!

5월에 책을 구매하거나 가족, 친구, 연인에게 선물을 보내면, 케이크, 꽃배달 서비스, 놀이동산 자유이용권, 고급향수 미니어처, 외식상품권 등 푸짐한 선물을 준대!

제 1회 디지털문학 공모

YES24와 동아닷컴이 전자출판의 새 장을 열어갈 디지털 문학작품을 공모합니다. 디지털 복으로 대변되는 책문화의 도래와 네티즌의 새로운 독서경향에 부응한 국내 최초의 공모전에, 한국 디지털 문화를 이끌어갈 젊은 창작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공모기간: 2000년 7월 31일
- 접수방법: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접수
- 부문 및 상금: 시(200만원), SF소설(700만원), 호러/추리소설(700만원), 무협소설(700만원), 원타지소설(700만원), 연재소설(총1000만원)
- 자세한 내용은 www.yes24.com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WWW.YES24.COM



매체비평

- 만화 편

‘바람의 검심’ VS ‘배가본드’

“이제는 리세기식 신세대 사무라이다”



정통 일본식 사무라이 만화의 공식을 깨고 새로운 캐릭터와 스토리를 보여주고 있는 ‘바람의 검심’과 ‘배가본드’

국내에 일본만화를 수입하는 출판사들은 만화의 내용과 상관없이 일본에서의 흥행성공을 곧 국내의 안정적 사업가능성으로 평가해 버린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

남아있는 반일감정과 사무라이가 보여주는 외형적 감성에 대한 반감 등이 스토리라인 및 인기작가에 상관없이 국내시장에 맞지 않는다. 그런데, 이러한 만화

에도 예외는 있다. 그 예외가 바로 사무라이 만화이다. 한국에는 중국을 배경으로 하는 무협만화가 강세이고, 그러한 무협지식 서사구조가 대부분의 만화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사무라이 만화는 수용자들에게 인기가 없을 것이라는 선입견이 지배적이었다. 조금이라도

계와 애니메이션계의 통설을 깨고 일본정통 사무라이 만화이면서 한국시장에서 놀랍게도 높은 흥행실적을 보이고 있는 작품들이 있다. 노부히코 와츠키의 ‘바람의 검심’과 이노우에 테케이코의 ‘배가본드’가 바로 그것이다.

사무라이 만화라고 하면, 거칠고, 폭력적이고, 무서운 인상의 검객들이 난무하는 남성적 만화라고 생각했었지만, 이 ‘바람의 검심’이라는 정통 일본식 만화가 국내시장에서 문화적 합인율을 역설적으로 획득하고 흥행에 성공한 이유는 고정관념을 허무는 전략을 쓴 것이다. 무서운 인상과 엄청난 체격, 날카로운 성격, 차가운 감성 등으로 예상되는 사무라이의 선입견을 완전히 배제시키고, 순정만화 주인공과 같은 여성의 캐릭터를 남성 사무라이의 얼굴로 대체시키고, 남성상을 확인시키기 위해 뺄

에 십자로 칼자국을 내기도 하였으며, 체격도 일반 성인의 왜소한 모습으로 설정, 강한 사무라이의 인상보다는 아주 평범한 미소년의 형상을 주인공 검객으로 묘사했다는 것이 이 작품의 차별적인 특징이다.

이에 비해 일본특유의 정통적인 사무라이 검객만화를 표방하고 있는 작품이 ‘배가본드’이다. ‘배가본드’의 백미는 3명 남짓한 방에서 실여명과 한명이 바짝 다가서서 벌이는 혈투장면이다. 수많은 장검과 단검, 그리고 창, 그 속에서 상대편의 몸을 피려 방패와 무기로 활용하는 다양한 검술과 화려한 액션, 마치 그 장면의 스피드만큼이나 빨리 책장이 넘어가는 부분들이 대부분인 작품이다. 특히 이 만화는 에이지 요시카와의 ‘미야모토 무사시’라는 원작소설에 기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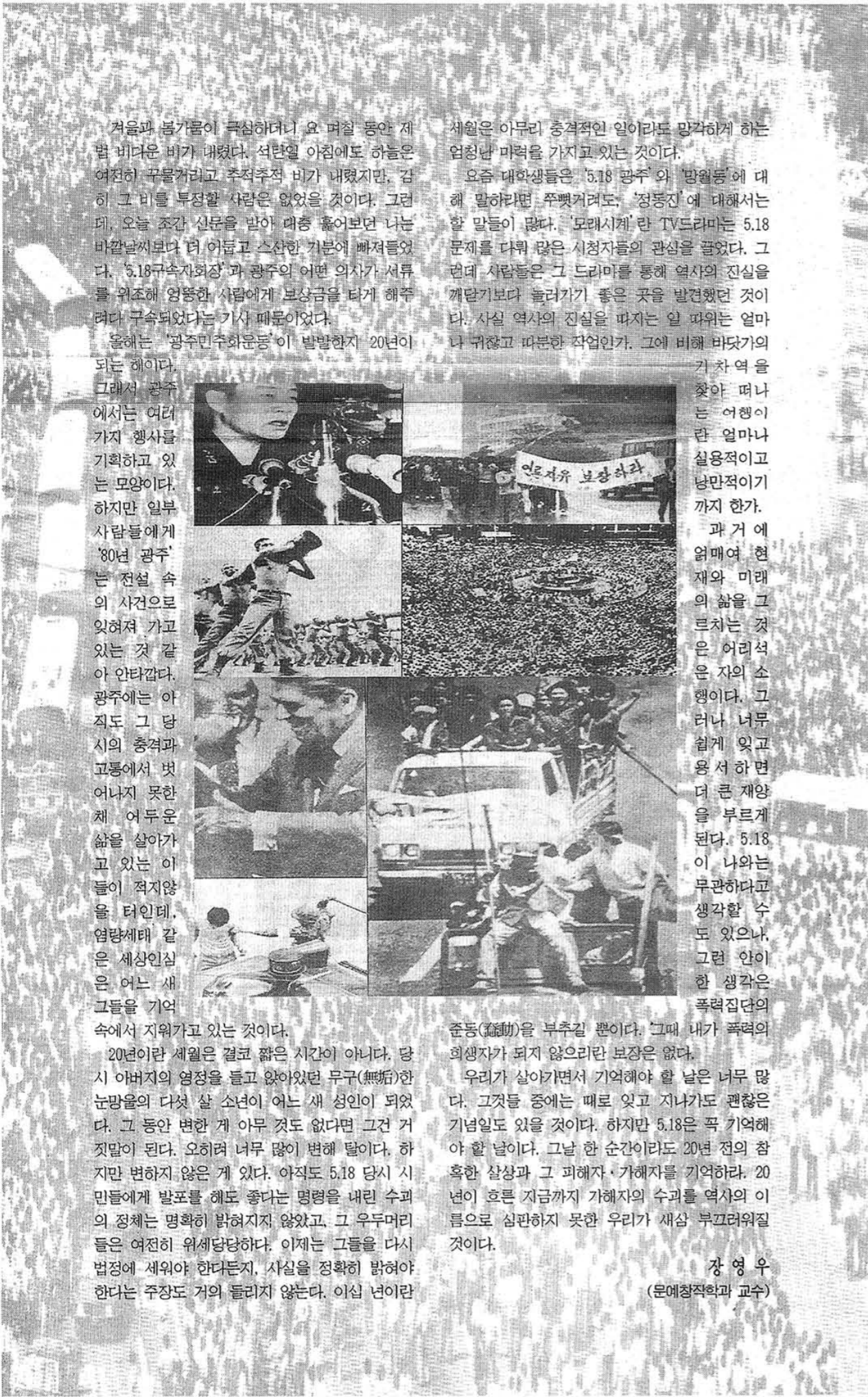
결론적으로 일본의 전형적인 사무라이 만화가 국내시장에서 독특한 작품으로 흥행을 인정받기 시작한 것은 사무라이 만화의 전형을 고수하기 보다는 현대감각에 맞게 작품의 변형을 적극적으로 모색했기 때문이다.

‘바람의 검심’에서는 비열할 정도의 강한 검객을 여성캐릭터처럼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고, ‘배가본드’에서는 냉철한 검객의 세계를 간접적인 배경과 스피디한 화면전개로 화려하게 구성하고 있다. 윌리우드 장르영화의 문법들, 즉 스펙터클과 스피드, 그리고 대사보다는 화려한 액션으로 무장한 일본 사무라이 만화는 전통적인 콘텐츠의 새로운 개발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한창완
세종대학교 민화애니메이션학과 교수

시대의 어둠을 넘어 20년의 세월을 넘어

잊혀지고 왜곡되는 광주...올바른 심판 내리지 못한 부끄러움으로



처음과 불꽃이 극심해져서 며칠 동안 제법 비다운 비가 내렸다. 석탄일 아침에도 하늘은 여전히 무겁게리고 추적추적 비가 내렸지만, 김이 그 비를 투정할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 조간 신문을 받아 대충 훑어보면 나는 바람날까보다 더 아픈고 스산한 기분이 빠져들었다. 5.18민주화운동과 광주의 어떤 의사가 서류를 위조해 임종환 사람에게 보상을 타게 해주려다 구속되었다는 기사 때문이었다.

돌보는 ‘광주민주화운동’이 발발한지 20년이 되는 해이다. 그래서 광주에서는 여러 가지 행사를 기획하고 있는 모양이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에게 ‘80년 광주’는 전설 속의 사건으로 잊혀져 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광주에는 아직도 그 당시의 충격과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어두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적지않을 터인데, 열량세대 같은 세상인심은 어느 새 그들을 기억 속에서 지워가고 있는 것이다.

20년이란 세월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 당시 아버지의 영정을 들고 앉아있던 무구(無垢)한 눈망울의 다섯 살 소년인 어느 새 성인이 되었다. 그 동안 변한 게 아무 것도 없다면 그건 거짓말이 된다. 오히려 너무 많이 변해 탈이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게 있다. 아직도 5.18 당시 시민들에게 발포를 해도 좋다는 명령을 내린 수괴의 정체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그 우두머리들은 여전히 위세당당하다. 이제는 그들을 다시 법정에 세워야 한다든지, 사실을 정확히 밝혀야 한다는 주장도 거의 들리지 않는다. 이십 년이란

세월은 아무리 충격적인 일이라도 망각하게 하는 엄청난 마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요즘 대학생들은 ‘5.18 광주’와 ‘광명동’에 대해 말하라면 쭈뼛거리기도, ‘정통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모래시계’란 TV드라마는 5.18 문제를 다뤄 많은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드라마를 통해 역사의 진실을 깨달기보다 놀라기 좋은 곳을 발견했던 것이다. 사실 역사의 진실을 따지는 일 따위는 얼마나 귀찮고 피곤한 작업인가. 그에 비해 바닷가의 기차역을 찾아 떠나서 여행이란 얼마나 실용적이고 낭만적이기까지 한가.

과거에 얽매어 현재와 미래의 삶을 그리는 것은 허리석은 자의 소행이다. 그러나 너무 쉽게 잊고 용서하면 더 큰 재앙을 부르게 된다. 5.18이 나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그런 안이한 생각은 폭력집단의 준동(蠢動)을 부추길 뿐이다. 그때 내가 폭력의 희생자가 되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할 일은 너무 많다. 그것을 중에는 때로 잊고 지나가도 괜찮은 기념일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5.18은 꼭 기억해야 할 날이다. 그날 한 순간이라도 20년 전의 참혹한 살상과 그 피해자·가해자를 기억하라. 20년이 흐른 지금까지 가해자의 수괴를 역사의 이름으로 심판하지 못한 우리가 새삼 부끄러워질 것이다.

장영우
(문예창작학과 교수)

광주민주화운동 20주년 - ‘기억속으로’

60대 “죽은 사람만 불쌍해”

내가 아는 5.18은 전두환이 지방색을 없애려고 광주 사람들을 씩씩했었다는 것이여.

박정희 고향이 경상도였어. 그래서 그때부터 전라도 사람들을 많이 괴롭혔지.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이 견디지를 못하고 서울로 올라왔는데 할 일이 없으니까 다 사기꾼들이 되어가지고서는 나쁜짓만 하고 다니더라고. 그러니까 전두환이가 정권잡으면서 지방색도 없앨 겸 범죄자들도 몽땅 없애버릴 걸 전라도를 속발으로 만든 것이제.

예전에는 말이지 전라도 사람은 ‘와이취’라고 하면서 사립취금을 안했어. 나쁜놈들이 많았거든. 광주사람들 그때 아마 많이 죽었을 거야. 나쁜 짓을 했어도 죽은 사람은 불쌍하지. 그래도 전두환이 죽이고 싶어서 죽였단. 광주사람들이 총을 먼저 쏘았다고 하더라. 빨갱이 놈들이 주동해서 그런 것이람사? 이런 얘기 어디서 들었나구? 나도 신문보구 살아. 노인네라구 무시하는 거여 시방?

30대 “바람결에 광주의 신음을 들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터졌을 때 난 중 3이었다. 그리고 전주에 살고 있었다. 전주는 광주의 신음소리, 한숨소리를 바람결에도 들을 수 있었던 곳이다. 하지만 5월 18일의 광주는 어떠한 희미한 목소리도 내뱉지 못하게 차단되었다. 아침마다 대문 한 칸에 꽂혀 있던 누린 종이와 일간지의 내용은 너무도 관이하기만 했다. 그 어떤 것도 진실이라고 믿어지지 않았다. 밤이면 집밖으로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한 나날들 속에서 친구와 형, 동기들의 죽음이 들려왔다.

“내가 전에 알던 아무개가 총알을 맞고 죽었다더라” 영문을 몰랐던 공포가 그제서야 현실이 되어 눈앞에 다가오는 것 같았다. 20년이 흘렀지만 5.18의 광주는 여전히 우리 역사의 깊고 아픈 상처이다. 하지만 그때 나는 울음을 삼키며 “역사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낸다”던 선배의 말을 믿었다. 그리고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버렸지만 그 믿음은 나를 저버리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문제들도 반드시 진실 편에서 해결되리라 믿는다. 광주민주화운동 20년을 맞는 지금 치열하고 뜨거웠던 광주의 5월 18일은 우리에게 가슴아픈 역사이며 동시에 되풀이되어서는 안될 역사일 것이다.

20대 “이제 역사를 올바르게 심판해야 할 때”

나는 지난 80년 5월 칠월같이 어두웠던 광주의 봄을 알지 못한다. 단지 민주주의를 향한 강한 열망이 전라도 광주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처참하게 죽음으로 몰았다는 사실만을 들었을 뿐이다. 그러나 내가 20살이 훌쩍 넘어 대학생이 되어있는 지금, 교훈리적이 일어났던 5월의 역사현장이 민주화를 이끌어 낸 발판이었음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리고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정한 영웅이 핏빛거리를 민주화에 대한 열정으로 채웠던 목숨을 잃어간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새삼 깨닫는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이른 기억들도 올곧게 성년을 맞게 되었지만 우리 나라의 정치사 속에서 5.18의 진상은 여전히 외면 당하고 있다. 실제로 그 동안의 정치적 제약들은 이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철저히 규명해 보려는 의지를 항상 꺾어 놓았다. 이제는 열린 생각을 가진 대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광주민주화운동을 다각적으로 바라보고 올바른 심판을 내리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오늘 나는 그때 광주에서 부끄러웠던 ‘민주’를 향한 외침이 단순히 10일 간의 항쟁으로 끝맺을 되지 않기를 바란다.

문학부

자문소식

학교 안에서

그리고..그림 소품전



서울캠 순수미술 동아리 ‘그리고...그림’의 정기전. 색연필화, 유화, 수채화 등의 다양한 작품 30여 점을 전시한다. 00학년, 새내기들의 데뷔전.

오늘(15일)부터 19일(금)까지. 학생회관 2층 연회관에서. 문의 016-432-8373(황해준:그리고...그림)

디디들 자극영화제



서울캠 영화동아리 ‘디디들’의 정기영화제. 대동제를 앞두고 먼저 선보이는 무료영화 ‘사우스 파크’는 무삭제판으로 상영되며 어른보다 대단한 악동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오늘은 19일(금) 8시 민해광장에서. 문의 018-280-6363(전병준:디디들)

의과대 연극부 ‘자고 나려 우는 새야’



경주캠 의과대학 연극부 ‘소리 몸짓’에서 ‘자고 나려 우는 새야’라는 제목의 공연을 갖는다. 현실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버스에 모여 드는데, 대사 속에 현실 비판이 들어나고, 특히 이번 공연은 14기 연극부원들이 조영, 무대를 직접 설치했을 뿐 아니라 무대를 관객석까지 연장시켜 관객과 배우가 공감하는 공연이 될 듯.

오늘은 16,17일. 소강당 I에서. 오후 6시.

제7회 동국 오픈



경주캠 테니스 동아리에서 ‘제7회 동국 오픈’을 개최한다. 대구, 포항, 울산지역의 20개 대학에서 참가할 것이 3중목으로 나눠진 행진이다.

학교와 동아리를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좋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학교행사로 거듭나기 위해 학교측과 학생회, 학생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할 듯.

오늘은 20일부터 21일까지. 경주캠 테니스코트와 보조코트에서.

제1회 동국 교수 음악회



경주캠 사회문화교육원에서 ‘제1회 동국 교수 음악회’를 개최한다. 1부는 뮤지컬 ‘사바토 리 2부’는 국악교실 3부는 다함께 노래 부르기로 이어진다. 음악포토

그림의 활성화와 교육원과 본 대학의 홍보 효과가 기대된다. 초대장은 사회문화교육원에서 무료로 선착순 2백명에게 나눠준다.

오늘은 18일. 소강당 II에서. 저녁 7시30분부터 9시까지.

미아리

불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속담이 있다. 속고 속이며 사는 세상은 이 사회에 만연한 불신을 말한다. 거짓이 가득한 지금의 모습. 알고 속아주거나 속는 사람이 있는 반면 남을 속이는 행위를 즐겨워하는 사람이 있다. 그렇다면 전자의 경우는 발등이요, 후자의

경우는 도끼가 된다는 말인가? ▲거역의 무기거래 중개로 한반도를 뒤흔든 여인이 나타났다. 최근 국내 언론은 그녀를 쫓아다니며 모 국방장관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파헤치는데 주력하고 있다. 김영삼 정권 당시 굵직굵직한 방위관련 사업마다 개입되지 않은 사업이 없을 정도로 간 큰 여인.

이를 하여 재미 동포 ‘린다 김’. 그녀는 모 국방장관과의 부적절한 관계 속에서 ‘로비’라는 이름의 도끼로 한반도 호랑이 발등을 찍어 버렸다. ▲그리고 오랫동안 우리 나라 최대 국제 사업으로 준비되어온 경부고속철도 사업을 둘러싸고 프랑스 알스통사 로비스트 최만석의 1백억원대 로비 의혹 사건이 또 하나의 도끼가 되어 국민들의 발등을 찍

었다. 린다 김 로비 사건에 이어 드러난 이 사건으로 부정할 고위 공직자들의 도끼에 발등을 찍힌 국민들은 그들에 의해 우롱당하고, 더 나아가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마저도 추락하고 있다. ▲오늘은 스승의 날. 언제나 학생들에게 끊임없는 가르침을 전하는 교육자들을 위한 날이다.

부적절한 관계 가지기, 고위 관계자와의 끊임없는 접촉 가지기 등 린다 김과 최만석의 로비 철학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이런 철학을 가르치면 안될까? ‘더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마라!’

김미영 편집부장
candy@mail.dongguk.ac.kr

소나기

린다킴 로비스트 사건



△내가 너 언젠가 일철쯤 알았다. 으이구~ 아무리 부인해도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다!!

△기수할 때 보다 더 인기에~ △금품없는 로비를 했다는데... 돈없는 로비는 팔없는 봉어뽕이야~

△모두들 그녀에게 집중하고 있지만 주인공은 고위층들이 아닐까?

△경찰이 고생이군. 위에서 누르고 아래에서 치고...

△이 사건은 나라의 망신이다 △섹스는 없었다(?) 과연...

△나가 무슨 007 제임스 본드 인줄 아냐? 착각하지마!

△그 좋은 머리, 나라 위해 써라 △린다 김! 국내 와서는 로비 사업으로 버틸래?

△제2의 장영자가 나타났다!!

△남의 애정행각엔 관심없다. 다만 우리의 혈세가 방만하게 쓰여 졌다는데 분개할뿐!

△아무 죄 없다고 호소하면 이제 누가 믿어줄까?

△린다 김은 유행을 선도한다. △로비인가? 러브인가?

△아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양김 사이의 호색할 이상호.

△린다 김이 이쁘니까? 눈 낮은 전00장관? △질문) 린다 김은 패티 김과 무슨 관계인가?

△대답) 양로 김의 딸입니다. △자랑스런 율곡의 씨 이상호 씨 백두美人 린다 김과 한글을 하니 다른美人 모두 일어나 흠뻑을 드는구나!

△린-린다 김입니다 나-다들 린다 라고 부르지요. 사실은 김-김귀옥입니다

△린다 김, 호기준, 늙은 장영자 이쁘면 다 일 내나?

△린다 김! 정신차려! △린다 김? 나는 난다 김!

△나는 진다 김!

캠퍼스를 돌아보자

무관심 속에 방치되는 문제점 산재

정신 없이 진행되던 중간고사를 끝내고 나니 어느덧 여름의 문턱에 서 있다. 우리 학우들도 정신 없이 달려 왔으니 이제는 한 숨 돌리며 따뜻한 햇살과 캠퍼스의 추억도 생각해 볼 만하다. 여기서 우리는 한번 주위를 둘러볼 필요가 있다.

강의실은 점봉(?)? 우리 경주캠퍼스는 주 강의동이 세 군데가 있다. 봄과 가을에는 알 수 없으나 여름과 가을이면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많은 학생 수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는 강의실을 운용하니 강의실은 비좁고 강의실을 설계한 건지 사무나를 설계한 건지 알 수 없을 만큼 바람 한 점 없다. 학생들은 여름이면 공부하면서 사무나하고 겨울이 다가오면 공부하면서 차를 올린다.

화장실: 에너지 절약의 본산, 우리 학교 화장실의 시설은 국가 에너지 절약에 큰 공헌을 하고 있다. 세면기 수도꼭지는 하나는 되고 다른 것은 안되니 수도원을 절약하고 휴지는 늘 없으니 환경보호에도 일익을 담당한다.

특히 도서관의 화장실은 그 반면에 최소한의 개수로 가장 큰 몫을 하고 있으니 우리 동국대는 애국자이다.

빨 위에 지은 집: 우리 학교는 불교재단이므로 자아와 명상을 반드시 이수해야만 졸업이 가능하다. 자아와 명상을 빠스하기 위해선 정각원에 가야하는데... 정각원 가는 날은 언제나 비가 오고 우리의

온몸은 진흙으로 물든다. 남들은 일부러 진흙마사지도 받는데 우리는 정각원 갈 때마다 받으니 우리 동대생은 모두 피부가 좋은 모양이다.

대운동장: 누구나 대운동장이라고 하면 큰 운동장이 있거나 아니면 중운동장이나 소운동장이 있고 대운동장이 있는 줄 알 것이다.

그러나 우리학교에는 운동장이 한 개다. 그래서 축구시합이나 야구를 하려면 전정이다. 우리 학교 운동장은 대학교에 있기 때문에 대운동장이다.

이상 열거한 외에도 너무나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비단 우리학교만 그러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무심코 지나가는 무관심으로 인해 학교에 맞설 수 있는 우리 대표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올해도 학교는 흑자를 볼 것이다. 올해도 우리 등록금은 어디에 사용되는지 모르 채 강의실에서 사무나를 하며 휴지 없는 화장실 덕분에 휴지 찾으러 뛰어다니며, 진흙마사지하며 절로 할 것이다.

학교는 학생들의 주인 의식 없는 변화가 없다. 학생은 학교가 잘 대우해 주지 않으면 학교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 끊임없는 슬래집기를 이제는 한 번 멈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

이봉홍(법정대 법2)

성숙한 대학생의 자세

타인의 입장 배려 가장 우선시

우리 학교 이곳 저곳에는 건전지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다. 이것은 한번 쓰고 버리게 되는 건전지를 충전해서 조금이라도 더 사용해 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 졌다.

하지만 이러한 재활용 의도와는 다르게 충전된 건전지를 그냥 가져가는 몰상식한 행동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분명히 건전지에는 주인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름은 그저 장식물일 뿐 충전기 속의 건전지는 계속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이다.

혹자는 그까지 건전지 하나 없어진 것으로 호들갑을 떠다고 말할 지도 모른다.

하지만 계속 당하는 입장에서는 쉽게 무시할 일이 아닌 것이다. 건전지도 도서관의 책들처럼 바코드를 찍어서 가져가도

록 해야 하는 것일까?

건전지 충전기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용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소한 상대방의 물건일지라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추가급인(推己及人), 내 자신을 미루어 짐작해서 남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말처럼 내가 당해서 싫은 일은 남도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행동해야 한다.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잠시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듯 싶다. 말로만 지성인이라고 부르짖지 말고, 성숙한 행동을 몸소 실천할 수 있는 대학생이 되어야겠다.

이선미 (이과대 자연과학부2)



5월의 교정... 나채 밭 곳곳에 삼삼오오 무리지어 계절을 즐기는 학생들의 표정은 푸른 나무보다도 더 밝고 질다. 5월의 싱그러움처럼. 촬영=송광수 동문

모니터링

제 1295호 동대신문을 읽고

알차고 충실한 기사 부족... 독자 호응 못 불러

기사 나열보다 심층있는 기사 작성에 주력해야

동대신문을 볼 때마다 나는 허전함을 느낀다. 뭔가 빠져 있다는 느낌, 겨자 없는 회를 먹는 느낌이라고 할까? 1295호 역시 그러했다.

개교 94주년 기념으로 나온, 12면이나 되는 지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딱히 나의 눈을 끄는 기사가 별로 없었다. 왜일까?

기사와 기획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점을 먼저 들 수 있다. 기사는 사진을 객관적으로 보도하는 글이고, 기획이나 특주는 신문사의 '관심과 깊이'를 보여주는 척도로서 흔히 전문가의 글을 통해 시대를 짚는 면이다. 이런 잣대로 봤을 때 이번 신문 역시 많은 부분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기사는 기사를 써야 하고 기획은 가급적 외부에 청탁해야 한다. 그러나 1295호 역시 기자가 기사와 기획을 넘나든다.

가령 문화편의 기획인 "시리즈 속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라는 기획을 보면, 제목과는 달리 내용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없다. 부분적 일상만 나열하다가 글을 맺는다. 문화평론가에게 청탁했다면 어땠을까. 편집은 또 어땠까. 심하게 말하면, 스포츠 신문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든다. 기사 반사진 반이다.

기자의 기사 작성 분량이 한 명에게 치중된다는 것과 그것 때문에 깊이 있는 기사가 나오지 못한다는 것도 지적해야겠다. 1295호의 경우 김은선 기자는 꽤나 비중 있는 기사 세 개를 썼다. 문화부, 기획부라는 익명의 기사와 이름 없는 기사까지 합하면 1.5배는 될 것이다. 기사가 풀리면 깊이를 지니지 못하는 것은 자명하다. 김은선 기자가 쓴, 이번 신문의 가장 중요한 학내 기사였던 총학생회 농성 해제 기사는 등록금 최종 확정 기사에 통합되었고, 농성 해제에 대한 학생회장 인터뷰나 학우들의 의견, 신문사의 입장 표명 또는 깊이 있는 분석 모두 빠져 있다. 단지 이러한 기사들의 나열만 있을 뿐이다.

주간 신문을 만든다는 것은 매주 피를 흘리는 고통의 작업이다. 그러나 그 고통을 '왕홀한 고통'으로 승화시켜야 하지 않을까? 대학원장은 자주 말한다. 옛날 동대신문은 일간지에도 자주 인용되었다고. 문제는 옛날이라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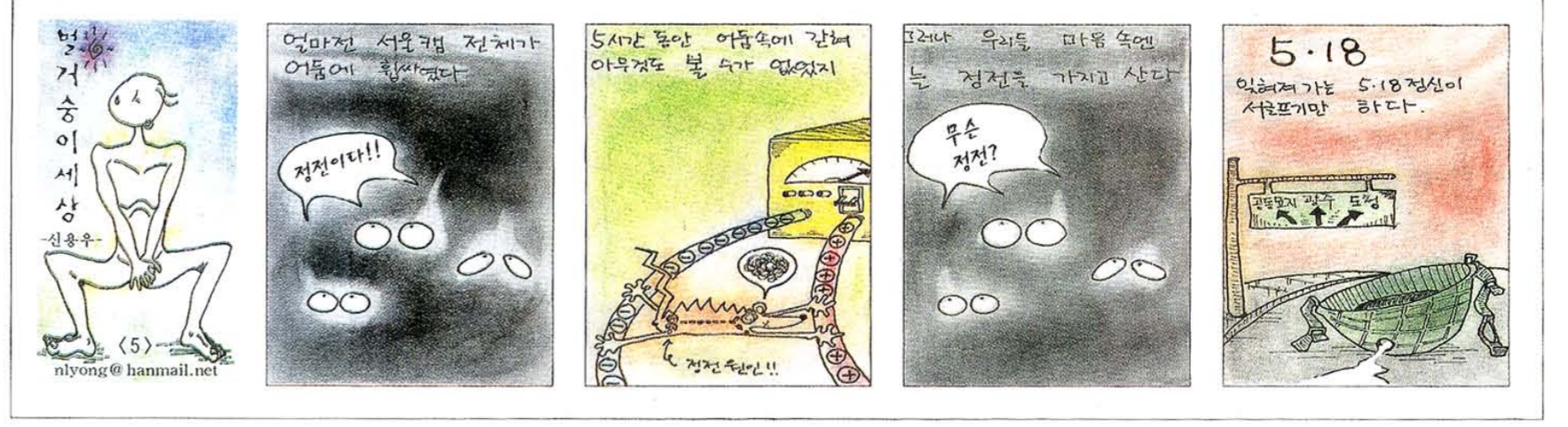
강성률(동국대학원신문 편집장)

TEL: 22603491·2
(0561)7702058
FAX: 22791270
(0561)7702057
하이텔 ID: dgpress
나우누리 ID: 동대신문
천리안 ID: dgupress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3~4매 분량의 글이나 시, 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정 제 1294호 2면 속사에서 서울캠 교지 편집위원회를 동국교지편집위원회로 정정.

정 제 1295호 5월 8일자 신문 6면에 보도된 프론티어에 관한 기사 중 '아이디어 회의를 매주마다 하는 것'으로 정정.



동악광장

동국관 학생식당 차림표

월	어묵백반(1300)
화	오징어탕수육(1500) 감자탕(1500)
수	해리라이스(1300) 콩나물무림(1300)
목	닭곰탕(1500)
금	참치김치찌개(1300) 소고기명면탕(1300)
	제육떡갈비(1500)
	만두육개장(1300) 잡채밥(1300)
	짜장소스볶음밥(1500)
	콩나물국밥(1300) 돈까스(1300)
	두부김치(1500)

(단위: 원)

상록원 학생·교직원식당 차림표

월	복합(1500) 쌀밥(3000)
화	콩나물볶음밥(1300) 육개장(3300)
수	양지탕(1300) 생선가스(2500)
목	카레라이스(1300) 해물탕찌개(3000)
금	비빔밥(1300) 돈까스(2500)
	스키게타(1500) 조기메운탕(3300)
	오징어볶음(1500) 차킨가스(2500)
	양송이버섯밥(1300) 날치알비빔밥(3300)
	사골우거지국(1300) 정식(3000)
	해물볶음(1300) 오징어볶음(3300)

(단위: 원)

목격글

축하합니다

△해진야! 생일 축하카한다. 항상 행복하게 즐겁게 지내길 바란다.

-오빠가

△경민아. 너의 23th 생일 축하해. 5.14 Tigger's birth 건강이 으뜸!

-YD오빠가

△5월 19일 DUBS 방송제 축하해. 기술부 파이팅! 장도 파이팅! 멋진 모습 기대할게

-40th young

수고하셨습니다

△인문 99과대들! 엠티준비 수고했소. 글구 중학아! 너도 수고했다. 99동기야. 사랑해~

-99 태종

△멋진 방송제 작품 만드세요.

-멋진 00, 아름과 리나

열심히 합니다

△군대간 기철 학우에게... 위문편지 써 줄려고 했는데 훈련병 6주 훈련받고 자대배치받을 내 편지 조각될까 같아서 아직 부치지 못했다. 열심히 해~

△이상현, 한웅, 구자룡, 서영건 우리 열심히 살아가지! 글구 새벽걸음 친구 류연숙과 박승재두... -16대 이장이

△바쁜 일정의 5월! 학복위 식구를 힘내시! 사랑해요~ -생장

△은희야! 힘내라! 2% 부족해도... -널 지키는 친구가

△방송제를 위해 열심히 하시는 형들의 모습 넘 멋져요. -DUBS42

그리고...

△각형♥영은 드디어 역고 100 CC가 탄생했습니다. 짹짹♥ 행복하세요 -99

△정산대 99학번 신두경 음류수 하나에 야리구 가위바위보하구 뺏어 먹구 실망이야!!

인방글

축하합니다

△Adventure와 T.I.I의 합병을 축하합니다. -별고

△한문학과 행운의 여자피구부 전승을 정말 축하해요! 우리 우승을 노려보며... △은미야! 생일 축하하고 더불어 의심쟁이에게도 이 소식 알려라. -귀여운 친구가

△국문학과 모든 교수님들, 스승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토익인

수고하셨습니다

△동국 연극회 21기를 워크샵 연습 힘들지? 모두 열심히 수고하고 연출 보는 토끼 파이팅!!

△한희애와 야구 동아리 한동치, 동국기조 2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 피구하는 애들아~ 힘들지만 힘내서 꼭 우승해라. -사회복지인

열심히 합니다

△골 축제 전시회입니다. 모두 열심히 하시다. -영삼19기

△조경학과 4학년 졸업작품 준비 모두들 열심히 합니다. -팀 총무

△원진아! 다래원에서 일하는 거 게으른 너한테 무리지? 열심히 일해서 월급 받으면 맛있는 것 많이 사줘. 열심히! △동국음악회 1학년 부기장 미현아~ 열심히 해서 솔로 꼭 해! -오래 전부터 알려진 스파워 토익 여러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영어 공부 열심히. -토익인

알립니다

△동국 문화회에서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관심있는 학우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간호학과 00학번 송하얀

△술메리아 공연 마니 마니 보러 오세요. -술메리아 팬

경주캠 학생회관 식당 차림표

월	가지불고기(1300) 크림소프(1300)
화	돈까스(1500) 할박스테이크(1800)
수	호박김자반장국(1300) 동태매운탕(1300)
목	김치볶음밥(1600) 잡채밥(1800)
금	닭개장(1300) 김치수제비국(1300)
토	쇠고기달걀(1700) 해리라이스(1500)
일	감자다시마국(1300) 해물야채찌개(1300)
	오징어달걀(1600) 쇠고기달걀(1700)
	찜통국(1300) 근대국(1300)
	생선가스(1800) 카레라이스(1500)
	미역국(1300)
	해물볶음밥(1600)
	무채국(1300)
	돈육달걀(1600)

(단위: 원)